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AY 1 1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20 1982년 5월10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May 10, 1982

목사지지측 노회탈퇴 독립교회 설립

임마누엘교회 끝내분열

조목사의 신앙노선·재정문제가 불씨

5년전 한인연합교회에서 탈퇴한 교인들이 모여 설립한 임마누엘 연합교회는 조창환목사지지파들이 연합교단을`탈퇴, 독립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토론토 사회에 또하나의 교회가 생기게 됐다.

오랫동안 재정문제·신앙노선문제등으로 목사지지파와 반대파간의 분규가 계속돼오던 임마누엘교회는 지난 4월20일 캐나다연합교회 토론토노회가 조목사의 노회가입을 정식거부한데 이어 지난 2일 임시공동의회를 마지막으로 두 교회로 나뉘었다.

이같은 임마누엘교회 분열에 대해 캐나다 장로교단의 P목사는 "교회도 인간공동체인 이상 약점이 많고, 이민사회의 갈등이 교회에도 똑같이 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이같은 갈등을 파괴적이 아닌 건설적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P목사는 또 이민연한에 따라 이민자들의 심적상태나 문제, 욕구들이 다양하므로 독선적, 획일적 목회방법으로는 이민목회의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임마누엘교회 분규의 발단은 박근칠,문영환,송완일씨등 목사반대파들이 1)목사주택 구입에 관련 $5만 부정융자와 교인의 자동차증여,2)조목사의 신학노선 불투명성과 지도력 결여를 이유로 작년 12월 109명의 서명을 받아 연합교단 지역협의회와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데서 표면화됐다.

이에 앞서 토론토노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13일 북부토론토지역협의회(North Toronto Zone Council)는 조목사의 노회가입 거부및 6월30일자로 퇴임을 16:14로 가결, 지난 4월25일 노회장이 임마누엘교회에 정식통보했으며, 5월2일 공동의회까지 교회동산및 부동산에 대한 명세서 제출도 요청했다.

연합교단을 떠나게 된 이유로 전택균,이영일,전영식씨등 목사지지측은 1)노회가 대다수 교인들(2/3)의 조목사 지지청원서를 묵살하고, 반민주적으로 1/4의 조목사 반대자들의 청원서를 채택했고 2)지역협의회 표결전 한국인은 화해할 줄 모른다는 내용의 책 "한국인의 성품"을 낭독, 한국인을 모독한 점 3)지역협의회 사회자가 회의진행과정의 실수로 투표권이 있는 임마누엘교회 대표 3명을 퇴장시키고, 투표를 실시한 인종차별적 처사등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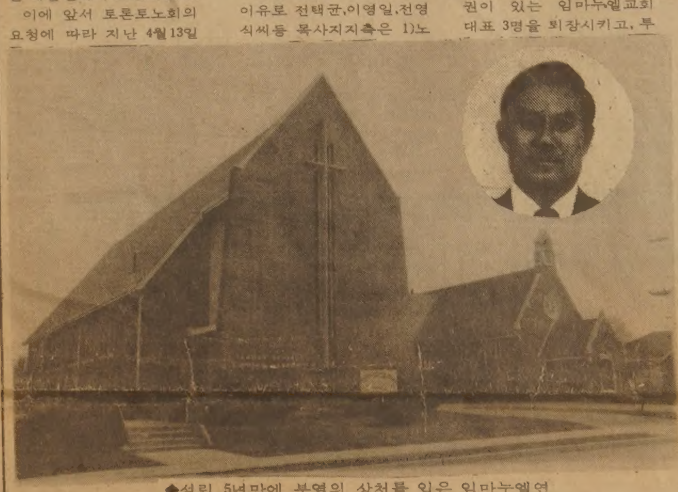
이에 대해 반대측은 "부당한 일을 수의 많음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민주적인 처사이며, 노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옳았다. 한국인을 모욕한 책자의 낭독에는 이쪽에서도 강력히 항의, 사과를요구했다. 임마누엘교회 대표3명이 퇴장된데 대해서는이미 회의 시작때 이들 3명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사전 요청이 있어 이들도 수락했으며 또 이들 대표 3명은 교회행정의 착오로 아직 노회에서 정식대표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목사반대파들은 "문제의 목사주택구입시 모기지를 제외한 $5만 부족액을 노회와 교섭 7%의 싼이자로 융자를 받을때 융자신청서에는 교회주택 구입으로 명기하고, 공동의회에서는 교회의 보증이 있어야 목사의 개인주택 구입에 대한 노회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오도, 통과시켰다. 이 융자신청서류는 동교회 총무위원장인 K씨가 조목사 부임전 이미 작성했다.

이후 매달 교회재정으로 융자이자가 나가자, 이상히 여긴 재정위원들이 융자신청에 관한 제반서류 검토를 몇차례 요청했으나 작년 6월 노회특별조사위원회가 나오기까지 K씨가 내놓지 않았다"고 말한다.

목사지지측에서는 "$5만 융자건에 대해 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5만 융자신청시 이를 알선한 전임 임시당회장 스탠포드 목사의 상반된 증언으로 제직들간에 혼선을 빚은 것 때문이며, 임시당회장인 버치목사가 작년 10월 임시제직회의에서 "이는 쌍방의 사무착오였으며, 연합교회 실무담당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을 전했으며 공한까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에 의하면 노회가 이 일로 융자를 반환하거나 융자를 반환하지 않으려면 목사 주택으로 주택소유자 타이틀을 변경하라고 요청했다 한다. 조목사는 토론토외환은행에서 대부를 받아 노회융자를 반환했다. (3면에 계속)



◆설립 5년만에 분열의 상처를 입은 임마누엘연합교회 전경과 원내는 조창환 목사.

◆지난2일 영국 헬리콥터의 공격에 희생된 알젠티나 순시선 알페레즈·소브랄호의 선원 8명의 관을 바라보며 추도하는 전우들. 200마일 봉쇄지역안에서 공격을 받은 소브랄호는 5일 파손된채 귀항했다.

영·「알」 의혹 여전

유엔평화안 실시난관

(유엔본부)알젠티나와 영국 양측은 휴전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구체적 방안에서 서로를 의심 휴전협상을 위한 외교적주도권을 서로 미루고 있다.

유엔은 6일 평화안을 마련 양측에 전달, 양국은 즉각 거부는 아니나 합의점에 다달으기는 어려운 태도를 보여 "대단히 미묘한 입장"이라고 자비에·페레즈·드·쿠엘라 유엔사무총장이 밝혔다.

유엔평화안은 1)양측은 즉각 적대감을 종식한다. 2)알젠티나군은 포클랜드 군도에서 철수한다. 3) 영국함대는 포클랜드 봉쇄에서 철수한다. 4)양측은 포클랜드 통치권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한다. 5)알젠티나에 대한 경제적 봉쇄를 중지한다. 6)유엔은 포클랜드 본도에 행정을 담당할 행정관을 즉각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영국측은 알젠틴군의 즉각 철수를 협상의 기본조건으로 계속 고집하는 반면 알젠티나 정부는 영국측의 유엔평화안 거부가 영국공군및 해군의 재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얻기위한 전략상의 작전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들이 전했다.

시외직통 전화요금 인하

한국 1분에 $2.75

지난 3일부터 1분에 $2.75로 한국, 홍콩및 일본에 「직통전화」가 가능하게 됐다. 영국과 프랑스등 유럽지역은 $1.50으로 인하됐다.

인공위성 TV와 해외전화통신을 관장하는 연방정부기구 「텔레글로브 캐나다」(Teleglobe Canada)는 지난2일 전화교환수가 필요하지 않는 직통전화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텔레그로브」와 「벨 캐나다」(Bell Canada)의 새로운 협상으로 한국, 일본, 홍콩이나 오스트렐리아와 같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주,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의 중동과 아프리카지역및 알젠티나, 브라질등 남미지역의 직통전화요금이 일률적으로 내려 1분간에 종전 $3에서 $2.75로 인하됐다.

한편 유럽지역은 요금차별제도를 실시 주중의 5a.m.—5p.m.에는 종전의 $2.25에서 $2로 5p.m.이후의 주중 저녁과 토요일은 종전의 $2에서 $1.50로, 일요일은 $1.85로 각각 인하됐다.

서울의 직통전화는 011-82-2-000-0000.

어린이날 잔치

어버이날에도

지난2일 토론토의 오순절교회(목사 장세택)는"어린이주일"을 맞아 어른들이 마련한 선물을 교회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어 8일"어버이날"에는 여선교회(회장 유인숙) 회원들이 만든 음식을 차려 어버이들을 대접한다.

어버이회(회장 김춘순) 회원들은 푸짐한 대접에 기대가 크며, 이같은 미풍이 해마다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모국어수업 정규과목으로

토론토시교위, 15 : 10으로 가결

토론토시교육위원회는 6일밤 7시간동안의 열띤 토론끝에 정규수업시간에 영·불어외의 외국어(모국어)를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4일간 약2백명의 관계인사들이 공방전을 벌인 끝에 모국어 교육전담조사반(반장 토니·실리포 시의원)이 내놓은 안을 15대10으로 채택했다.

이날 밤의 결정으로 금년 가을학기부터 토론토시의 5-10개학교가 모국어 교육을 정규수업시간에 포함시키며 이를 점차 확대 실시한다.

지금까지 모국어수업은 방과후나 주말에 실시돼왔다.

온타리오주 교육성이 내년부터 온타리오주 전학교의 정규수업시간을 30분씩 늘리기로 했으므로, 모국어 수업은 새로 늘려진 30분에 충당될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의 결정이 있기까지 수주일간 모국어를 정규수업시간에 포함하자는 시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쌍방 모두 인종문제를 악화시키는 장본인이라는 공갈·협박전화를 받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감돌았었다.

토니·실리포 토론토 제3지구(Ward 3)시의원은 60%의 토론토지구 학생들이 영·불어가 모국어가 아닌 가정출신임을 감안할때 토론토시교위는 그들의 고유문화·언어에 존경심을 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아이들에게 모국어는 잊어버리면 안되다. 그러나 방과후에만 습득에 애쓰라"고 말할 수는 없지않느냐고 반문했다.

모국어가 정규수업과목으로 채택됐어도 실시여부는 학교의 학부형회의에서 결정된다.

제4지구(Ward 4) 시의원 패·케이스씨는 영국의 인종폭동을 예로 들어 "만일 소수민족문화배경을 인정안해줄 경우 영국같은 인종폭동 사태가 캐나다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반대측인 제9지구 제10지구 시의원 [illegible] 하이즐·[illegible]씨등은 결정을 오는 11월 있을 시의원 선거때로 미루어 선거구 유권자들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게 하자고 말하고, 찬성측을 지지한 신민당(NDP)을 비난했다.

모국어수업문제에 대한 청문회에서 쌍방의 신랄한 공방전은 복합문화주의 정책 자체를 분석하는 계기가 돼기도 했다.

◁금주의 행사▷

(5월9일～15일)

◆13일(목) 하오 6시 무역쎄미나
강사: 최승낙－캐나다금융경제의 현황
신동오－한국경제의 전망
김병주－무역의 기초
곳: Board of Trade 3층
(First Canadian Place Bank of Montreal)
연락처: 535－3352

◆14일(금)～15일(토) 상오 10시 노년회 나이아가라 관광안내
곳: 나이아가라 연락처: 755－8079

◆15일(토) 「한인민족상」 모집마감 연락처: 533－2361

오늘의 예금금리 (4월23일 부터)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고부장 : 송 광 호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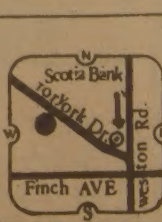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제14주년 개관기념및 이경태 사범8단 승단 기념을 자축하는 뜻에따라 5월 한달동안 한인교포 신입생에 한하여 40% 특별할인 우대합니다.

KYONG LEE TAEKWON-DO CENTER
중앙도장: 2281 YONGE ST.(6Doors North of Eglinton)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E.(Just East of Pharmacy, Plaza) 759－2500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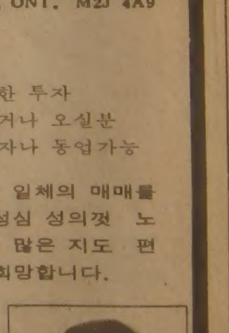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주택·대지·아파트
*가게·상가·사업체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 춘 성
DAVID CHAE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국인의 반미감정은 극히 미미"

워커대사 관훈언론인클럽에서 발언

(서울7일=연합)리차드·워커주한미대사는 최근발생한 일부 한국인의 반미감정은 아주 미미한것으로("A Minuscule Portion") 한국민사이에 반미운동 은 없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6일 한국언론인의 단체인 관훈클럽의 정기모임·만찬회에서 이같이 밝힌 워커대사는 자기개인생각으로는 반미사건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국신문들이 과장보도한것 같다고 말했다.

워커대사는 한반도 안보는 북동아시아뿐 아니라미국의 방위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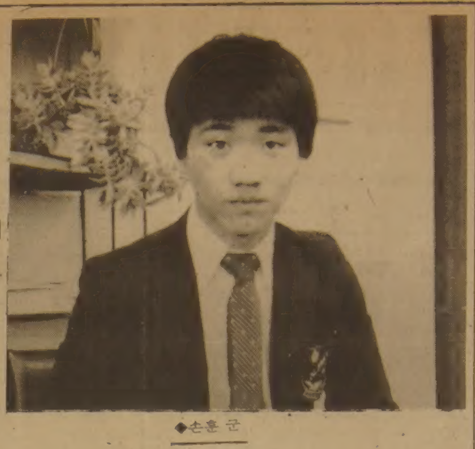
최근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요청된 60억달러 차관에 대해 워커대사는 한국이 동북아의 안보에 기여하는것을 감안한다면 일본은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할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일본의 차관제공을 촉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지·부쉬 미부통령이지난달 국회에서"미국은 이곳(한국)에서 환영을 받는 한 힘으로서 남아있을 것(Rewain as a Power)"이라고 말한것이 한국국민에대한 경고인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워커대사는부쉬부통령의 발언이"미묘한 의미를 띈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커대사는 또한 미국내에서 최근 대외무역상 호혜정책을 쓰자는 주장이나오는 것은 한국을 겨냥 한것이아니며 한국이 시장을 개방해 놓는한 미국은 수입억제책을 쓰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을 중공, 일본 다음으로 중요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무역상대국으로서도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라고말했다.

와이즈맨 골프대회
알파·베타클럽공동

토론토한인와이즈멘스클럽 주최 친선골프대회가오는 22일(토) 상오11시 글렌·이글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회비는 저녁겸 25불. 신청마감은 5월14일까지(연락 449-4499 Mr. 송)


◆손훈 군

손훈군 국제사격대회서 1등

전 북미 톱클래스 선수들과 겨루어

교포소년이 유명 국제사격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올려 장래가 촉망되고 있다.

가톨릭계 학교인 쎄인·베실고등학교 10학년에 재학중인 손훈(15)군은 지난 4월19일-26일 미국 조지아주 포트베닝에서 개최된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lay Pigeon Championship」트랩·슈팅(Trap Shooting)사격대회에서 B조와 쥬니어부에서 1등의 영광을 차지했다. 손군의 점수는 200점만점에 182점.

이번대회는 올림픽챔피언및 각종국제대회 우승자를 포함 전 북미지역의 톱클래스 선수 65명이 참가, 입상경력과 수준에 따라 매스터조에서 D조까지 나뉘어 실력을 겨루었다.

캐나다에서는 손군과 6번이나 세계여성사격챔피언이 된 수잔·나트라스를 포함, 9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나트라스의 이번 기록은 178점으로 손군보다 4점이나 뒤떨어졌다. 이번대회 챔피언의 기록은 188점이었다.

손군이 사격을 처음 시작한 것은 불과 2년전, 친구와같이 한인사격대회에 출전한 후부터 사격에 심취, 관계서적을 구입 이론을 습득하고 매주 토,일요일은 사격장에 나가 연습을 해왔다.

손군의 실력은 나날이 성장, 작년 6월 에드먼턴에서 열린 캐나다팀사격대회(Canadian Team Trials) 쥬니어부에서 입상했다.

72년에 이민온 손군은 손일건(48)씨의 외아들로 위로 누이 1명이 있다.

손군은 84년 L.A.올림픽과 88년 서울올림픽에 캐나다선수로 출전하여 입상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교민동정

◆김치백=지난2월25일 장암수술, 퇴원하여 정양중 지난2일 다시 입원, 4일 담석중 수술을 받았다.(센 마이클병원)

수술결과가 좋아서 약1주일후면 퇴원할 것같다고

불법담배 소지혐의 두 교민 기각판결

지난해 8월 있은 임페리얄 담배회사의 990상자 담배도난사건 재판에서 김두연·장영길씨는 기각판결을 받았다.

6일아침 10시 80 East Mall의 형사지방법원에 출두한 김·장 두 교민은 검찰의 장물은닉 혐의 공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했으나 재판장은 전과가 없는 이들의 정상을 참작 기각을 선언, 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정해문·전창수씨의 재판은 오는 9월13일로 연기됐다.

이들은 그리스계 아르반니티스씨및 윌슨씨등과 함께 모두 이날 법정에 출두했었다.

이들은 임페리얼 담배회사의 싯가 16만달러 상당의 도난담배가 지난 11월초 한국인 상점및 일부 도매상에서 메트로 경찰에 의해 적발됐었다.

소자본 투자문제 강상욱씨 강의

지난 6일밤 한인Y회관(931 칼레지·스트릿)에서 열린 토론토베타와이즈멘즈클럽(회장 이석현) 월례회에서 투자상담가 강상욱씨(Marrill Lynch근무)는 "소자본 투자로 재산을 늘리는 방법"에 관해 구체적 사례를 [illegible]며 강의했다.

주식, 정부본드, 금·은등의 매입으로 이익을 얻는 지혜는, 우선 시기를 잘 고르고, 종류선택에도 기민해야 하며, 값이 최하선으로 떨어졌을 때, 과감히 사들였다가, 상승세를 입어, 최고가격선에 이르렀을때 잽싸게 처분하는 것이 그 묘법이라고 강조했다.

'82 전 미주 태권도대회 성료

최홍희총재 참석, 9백명 운집

임송학태권도장 주최 '82전미주태권도대회가 지난 4월24일 이토비콕 올림피움 체육관에서 선수및 관중 9백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결승전에는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총재도 참석 눈길을 끌었다.

국제연맹산하 각도장의 250여명의 선수들이 낮12시부터 예선전을 일단 마친후 저녁7시에 간단한 식순이 있은 다음 결승전이 거행됐다. 결승전 사이마다 박정태사범등의 시범경기가 있었으며 임송엽선수(임송학도장)는 3인치 송판 3장을 손칼(수도)로 내려치는 시범을 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자유맞서기(대련)와 틀(형)의 유단자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자유맞서기(대련)

◆라이트급
1등: 레이먼(쾌벡 류렌·반·칸도장)
2등: 임송엽(임송학도장)
3등: 로이·실리안(스카보로 Fitness Centre)

◆미들급
1등: 폴·져먼(쾌벡 류렌·반·칸도장)
2등: 토니·무니(위니펙 한삼수도장)
3등: 필론·스테파니(쾌벡 안드레블랙도장)

◆헤비급
1등: 리·페리스(스카보로 Fitness Centre)
2등: 페·스켈리스(뉴욕 인스태권도)
3등: 프레드·버클리(버팔로 박정태도장)

●틀(형)
1등: 프레드·버클리(박정태도장)
2등: 김종배(임송학도장)
3등: 카트마스·쌀론(박정태도장)

◆제자리뛰어 높이차기 시범을 보이고 있는 박정태 사범(오른쪽끝).

불루어에 해장국 출현

한국관 새로운시도

◆나옥녀씨

3,4월 2개월간 점심스페샬을 시도, 직장인, 불루어근처의 상가교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불루어의 한국관은 요리사 2명을 추가, 지난 26일부터 해장국의 새 메뉴를 시도했다.

거구장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해장국을 만들었으나 장소관계로 불루어쪽 교민들은 맛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큰 인기가 없으나 꾸준히 주문이 늘어난다는 한국관 대표 나옥녀씨는 "불루어 한국음식점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즐기던 해장국같은 맛이다"고 한다.

선지, 콩나물, 배추시래기가 주된 재료인 이 해장국의 비결은 양념의 배합. "그것만은 비밀"이라는 나여사는 주방, 카운터, 손님써비스에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

한국의 인기 TV탤런트 출신인 나여사는 한국관 주인 이기향씨와 결혼, 81년에 캐나다로 이민왔다. 한국에서의 인기는 뒤로 젖히고 열심히 도마질, 양념배합등에 여념이 없는 나여사는 닥쳐올 여름에 대비, 점심스페샬을 다시 하겠다고 전했다.

불교의 은혜 ③

김삼우

우리는 지금 조국인 한국에 나서 자라 북미 캐나다에 와서 살고있다. 조국의 은혜와 더불어 캐나다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있다. 그리고 우리는조국의 고유한 민족문화속에서 자라나 지금 세계문화가운데서 살고있는 것이다. 지금 고도의 산업문명, 그리고 우주통신장비의 발달로 세계는 지구촌의 획일주의와 대중소비문화의 위협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계의 곳곳에서 소수민족의 언어, 풍습, 생활경제, 곧 그네들의 고유문화가 산업문명의 도전앞에 파괴되고 있다.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소수민들은 멸종되어가는 동식물처럼 그들의 생활터전을 잃고 문명의 공해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원주민들과 소수민들이 문명의 위협아래 자기고유의 생활가치를 빼앗기고 있다는것은 문명과 개발이라는 기치를 흔들고 인간이 무엇을 해왔는가를 반성하게 하여준다. 우리는 정치탄압, 인권유린, 그리고 사회정의의 문제만을 생각하기쉬우나 그보다 엄청난 의미에서 우리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우주질서를 교란하며,우리의 생활터전인 환경을 파괴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적 생활가치관을 준수하고 고유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은 산업문명의 획일주의에 도전하여 주체성(Identity)을 보존하고, 착취와 유린없이 모든 생명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정의로운 우주사회를 이룩하는데 없지 못할 기여를 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만이 백성이 아니라 풀 한포기, 나무한그루, 길가의 돌멩이, 구름한점, 새와 짐승이 모두 백성인 것이다. 이러한 백성들의 숨은 뜻이 존중될때 참으로 정의로운 우주사회가 실현될수 있는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산천초목과 삼라만상까지도 포함한「백성」의 의미가 지닌 복수주의의 이상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 이러한 복수주의의 이상이 실현될때까지 인간은 자연앞에 스스로를 낮추어 겸허한 자세와 조촐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행이고 대승불교를 신봉했던 우리선조들의 정신적 원망(바램)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불교문화는 이러한 우리조상들의 정신적 원망과 슬기를 간직하고 있다.

고유문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나서 우리는 고유문화의 특수성이 가진 제약도 아울러 알지 않으면 안된다. 개성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마치 어떤 보편적인 가치성을 지니고 있는 것 처럼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민 문화의 갈등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살기에 바빠도 우리의 앞날과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처한 정신적 입장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자라온 전통사회속에서 살고있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개방사회에 옮겨와서 살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관을 제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 가치관의 기저를 이루는 언어문화, 사고형태, 그리고 행동양식(Patterns of Behaviour)마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아래 있는 것이다. 여기와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프게 느끼는 일이다.

(계속)

(필자 : 선련사주지)

◆바로잡습니다◆

김삼우스님의 글 "불교의 은혜" 제1회분(본저 5월1 일자 제2면 게재)내용중 일부 교정실수로 빠진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그것은 무아로서의마음이다. 자기에 대한 집념이 많은 자아로서의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자기를 아주 떠나버린 비아의의 마음도 아니다. "자아와 비아의 상대를 끊어버린" 절대적인 자기, 우주적인 자기가 무아의 마음인 것이다?에는 인용부호 내의 부분을 첨가한다.

또한, 「대승불교의 입장을 받아들여 하느님이 은하나님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제2회 한인친선낚시대회 개최공고

일 시 : 5월 24일〈빅토리아 데이〉 오전 9 : 00~오후 4 : 00
시 상 : (1)특등, (2)대어 1 등, (3)대어 2 등, (4)대어 3 등, (5)4 등, (6)5 등, (이상 모두 PIKE에 한함), (7)잉어대상, (8)희귀상, (9)노익장상, (10)부부상, (11)아동상 (12세 미만)
장소 : BELL WOOD CONSERVATION PARK

※주의사항 : 1. 등록비 $5를 납부하고 등록번호를 받을것.
2. 82년도 회비 필한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수시로 등록비가 면제되며 선거 피선거권과 리셉션에 초대함.
3. 1인 낚시대 1개 바늘2개 이하사용
4. 본인이 잡지않은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질서가 문란한 선수는 입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5. 잉어상, 희귀상, 부부상, 아동상등에 해당자가 없을때에는 시상식후에 등록번호로 추천함.
6. 1인2회 입상불허 허함.
7. 낚시대, 바늘, 미노스, 떡밥, 지렁이등 각자지참.

※대회조직 : 대회장 : 정삼열 부회장 : 곽창수 총무 : 최남해
진행 : 이창관, 백은범 재무 : 김종근 심사위원장 : 강철용
심사위원 : 김재용, 이근호, 구진모
안내 : 755-9902 정, 298-7806 최.

후원 : 총영사관, 한인회, 한국일보
찬조 : 무역진흥공사, 동궁식당(곽창수), 한국식품, 불로아안경(구진모), 미도파선물(장추신)

--- 토론토한인낚시협회 ---

이대환 不動産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8,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도나스 샾
주매상 $9,5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샾 (새로 지은 MALL안에 있고 일요일쉼)
현재 주매상 $2,000 OPEN한지 3주됨. 좋은 리스에 몇개월내로 주매상 $7,000가능. 다운페이 $65,000 아스킹 $169,000

*드라이크리닝
주매상 $4,000(Cash &Carry) 아스킹 $179,000 주매상 $2,300 (Cash & Carry)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行材藥華中大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독자의 소리>

인 사

윤 재 용

편집자주: 이글은 금년도 미스코리아 캐나다 선으로 선발된 유혜련양의 아버지 유재용씨가 투고한 것이다.

어언 이민생활 8년, 물설고 낯설은 이국만리 캐나다까지, 좀더 잘 살아보자고 온지가 이렇게 되었다.

그동안 말 못하는 설움과 풍습이 다른 이국만리에 와서 살려니 자연 털어놓지못할 에피소드도 많았다.

그러나 이왕 이 나라에 정착하고 살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몇번이나 보따리를 쌌던 옛날을 되새기며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 영어학교, 장사, 공장, 또 장사, 이렇게 하여 아직도 가냘프지만 이제는 이느정도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햇병아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1녀2남을 둔 가장으로서 우리는 고생하고 서러움도 많이 받았지만 2세들만은 우리와 같은 전철을 아니 밟기 위하여 자식들에게 신경을 많이 할애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무척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들은 큰탈없이 13학년, 11학년, 9학년이 되어 이제는 제법 틀이 잡혀가는 애들로 자랐다.

그러다보니 자연 애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관을 털어놓을 때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빨리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황혼에 접어들어 가는 내 모습이 불쌍하게도 생각드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애들에게 혹시나 아버지가 약해지면 생활하는데 자신감을 잃을까 봐 일부러 조크도 하곤 하여 웃음으로 기회를 넘기려고 무척 애를 쓰며 생활하였다.

얼마전에 집사람이 딸아이가 "아빠, 이번에 미쓰코리아선발대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보는게 어떻겠어요."하고 나의 의사를 물길래 원래가 완고하게 자라난 나인지라, "그런데 나가면 애들 버린다"고 절대 못나가게 하였던바, 저의 엄마 친구들의 권유와 저의 친구들의 권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꼭 나가야 되겠다고 굳은 표정을 짓길래 아버지로서 너무 고집하는 것도 아니되겠기에 모르겠다고 하였더니 저의 어머니와 같이 가서 미인선발대회 등록을 하여 나가게 되었다.

하나 밖에 없는 딸이라고 하여 저의 어머니와 나는 유달리 정성을 들여 키운 애의 큰 행사인지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게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 일찌감치 대회장소에 가서 자리를 잡고 처음서부터 지켜보았다. 시간에 쫓기고, 특히나 구멍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시달리다 제대로 한인사회나 캐나다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며 쪼들리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한인사회의 대잔치에 나가서 제일 놀란것은 교포들의 뜨거운 참여의식과 관심이었다. 내가 이민을 와서 이렇게 교포들을 많이 모신 장소는 처음 참석하는 일이라, 몹시도 놀랐다.

그날의 모습은 정말 회회 만만한 분위기에 대화는 진행이 되었고, 교포들의 뜨거운 성원과 환성으로 미인대회의 진·선·미와 기타 아름다운 미인들이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대회를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애써주신 한인회와 한국일보사와 캐라반위원회, 그리고 토론토 총영사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그 뒤가 석연찮은 몇몇 일에 입맛을 다시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저대로의 하루저녁을 유쾌히 지내고, 딸자식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지났는데 그다음 얼마 아니되어 그래도 토론토에서 한인사회에서 널리 알려졌다는 인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래도록 전화도 없던 분이다. 반갑게 전화를 받아서 정중히 인사를 하였더니 이 저명인사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딸애가 틀림없이 일등(진)이 될것을 아버지 때문에 2등을 하였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딸애와 저의 어머니는 기대를 갖고 임하였던 터이라, 옆에서 전화통화 소리를 듣고 있던 집사람이 귀를 바싹 곤두세우고 듣는지라, 통화소리를 죽여 가면서 왜 아버지 때문에 딸애가 일등할 것을 2등이 되었느냐고 물어본즉 어느 곳이나 대회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수완이 수반된다는 것이고, 특히나 한인사회에는 심하다는 말씀을 듣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나라에 살 때 가끔 매스컴이나 지상을 통하여 듣고 보던것이 이국만리 북미에까지 와서 재연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회의를 금할길이 없었다. 물론 그 인사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긍정 아니하려고 무척 애도 써보았다.

그리하여 다음날 마음도 식힐겸 교외로 나가 골프를 한판 치고나서 가벼운 스낵을 하고 있는데, 역시 또 똑같은 내용의 인사를 듣고나니 이제는 자식 볼 의욕조차 상실하여지는 것 같았다.

어쩌다 이같이 못난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이 일등을 하고도 아버지의 처세 잘못으로 2등을 하였다면, 그렇다면 심사과정에서 정말 부정이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부정하려고 애를 무척 썼다. 이제부터라도 한인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에는 참여하려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나에게 애심으로 격려해 주신 저명 한인사회 인사들과 친지들이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겉치레 인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혹시나 나와 같은 어버이들을 위하여 두서 없는 필을 들었다.

신학적 견해 불투명 연합교회 교리와 달라

(1면에서 계속)

자동차 증여문제는 작년 2월 모교인이 $1만 상당의 승용차를 조목사에게 기증한데서 비롯됐다. 반대측의 진정서에 의하면 승용차 증여에 대한 물의가 일어나자, 조목사는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수습책을 회피, 노회조사까지 받게 되었을 때 노회측에 대해 조목사는 기증자의 연수입이 $5만이상되어 승용차값 지불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가게와 공장 두군데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증자 본인은 지역협의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조목사가 부임한 후 예수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 이에 감사의 표시로 자의에 의해 승용차를 기증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제의 발단은 같은 교회 장로로 있는 아버지와 몇몇 신도들이 사실은 알아보지 않고 이야기한데 있다고 진술했다.

반대측의 진정서는 또 조목사의 설교는 항상 기복적 신앙을 강조하여 기도로서 모든것이 다 이루어지며, 물질, 건강, 직장, 사업,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과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연합사업 봉사활동과 같은 에큐메니칼 정신의 구현이 전혀 없고, 조목사가 무능한 회의 처리·문제해결 기피등 지도력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조목사 지지파들에 의하면 조목사의 신앙이 결코 연합교회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캐나다연합교회 목사들의 개인적인 신학개념에서 먼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공동의회는 교회재정과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나 회의 벽두부터 노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파견된 노회장, 지역협의회의장및 감독목사와 조목사간에 사회자 선정문제로 충돌했다.

이날 노회측 대표들의 퇴장이후 계속된 회의에서 1)서로의 신학적인 상반으로 인해 1982년5월31일자로 임마누엘연합교회를 해산(어느 누구도 임마누엘연합교회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하고 교회 재산과 살림을 노회에 일임 2)교회 건축기금(약3만5천달러)을 일반회계로 전용, 조목사의 퇴직금으로 3개월분의 급료를 지불한다는것을 출석 정회원 178명중 찬성 138, 반대 3, 기권 37명의 표결로 가결했다.

노회는 처음 신축기금에 대한 자금동결을 했으나 지난 3일 해제하고 퇴직금(반대측에서는 그동안 밀린 휴가와 휴가수당이라고 말함) $8천4백을 은행에서 인출시킴으로써 공동의회의 합법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조목사 지지측은 말한다.

조목사 지지측의 결정에 대해 반대측은 "교회를 몇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해체 운운함은 신앙양심으로서 교회전통으로 볼 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처사이며, 임마누엘교회는 연합교단 산하교회로 계속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기자)

◆3년6개월된 나나가 양산을 받쳐 2개월밖에 안된 동생 니콜라스를 가려주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누나의 정성은 아랑곳없이 동생은 떼를쓰고 울기만.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8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㊱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그날 나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회의 전통과 제도와 신부로서 바쳐야할 순명등에 대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때 불현듯 내 모교인 프랑스 낭시 신학대학의막셀 교수신부가 회상되었다. 당시 그분은 70여세의 고령으로 은퇴생활을 하고계셨지만 신학대학 별실에서 기거하고 계셨다. 그분은별로 말이없었고, 그분의 얼굴표정은 항상 우울했었다.

그분은 젊었을땐 성서학 교수로서 학생들의 존경과 학자로서의 명성을 독점한 분이었으나 그분의 진보적 학설때문에 교황청으로부터 성서학 교수자격을 박탈당했었단다.

그후 그분은 교리신학교수가 되었으나 이것도 역시 교황청으로부터 제지당했을뿐 아니라 그분의 글을 책으로 출판하는것 마저 금지되었었다고 했다. 그분은 교회의 이러한 조처에 항상 순명했고, 교회사 교수로 여생을 마치고, 당시는 은퇴신부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 하게도 교황청으로부터 금지되었던 그분의 학설을 우리는 교회의 공식적인 성서학 해석과 신학으로 공부했던 것이다.

전통과 권위속에 제도화된 우리교회는 체제와 그 근본이념상 보수적이다. 교회의 보수성을 탓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보수주의 때문에 교회의 발전을 개척하려는 학자들과사목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을까를 생각하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편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물론 교회는 무조건의쇄신과 한 특수신학자의 진보적 사상을 이유없이 추종할 수는 없다. 대중이소화할 수 없는 쇄신이나 진보적 학설은 발전을 저해하는것 같은 보수적 사조보다 어쩌면 교회전체를위해서 더 해로울지 모른다.

교회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아무리 진리로 간주되는 학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에 맞지 않는 학설이라면 교회는 그것을 보류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입장을모르는바 아니지만 교회의이름으로 신부로서의 한 개인의 양심이 무시되는 경우를 당하게 될것이라 생각하니 신부생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한편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과 제도밖에서 자유로이 사목할 수 있는 개신교 목사들의 입장이 부럽기도 했다.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소성당 기도실에 들어가 성체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리노의 사정을 살살이 주님께 아뢴다음 나는 기도속에 다음과 같이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선 안식일에 대한 율법과 전통적 관례까지 깨뜨리면서 인간을 구제하셨는데 저는 뭡니까? 저도 주님을 본받아 기이에 본당신부나 주교청의 허가없이 살짝 부리노네집에서 미사를 지낼수 없을까요?"

"그건 안된다."

주님의 엄하신 말씀이들려오는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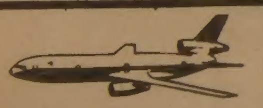
"그럼 주님께서 20여년간을 기다리셨다는 부리노의 영혼사정 앞에 저는 눈감고 있으란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께 항의하듯대들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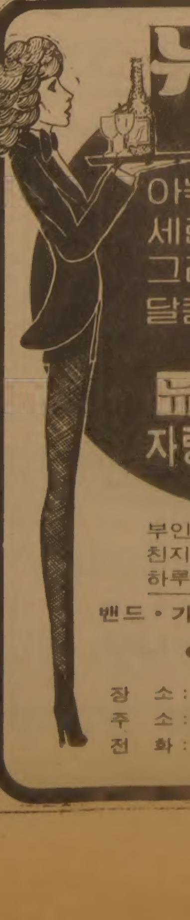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6004
R) 293-9970

주5일
식품점에 신문배달
식품점에 가시면
⊙새로나온 <한국일보>가 있읍니다.
⊙아내에의 선물<주간여성>도있읍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토론토 부근 10개 한국식품점에 당일 발행된 신문을 매일 배달, 판매합니다.(단: 미시사가소재 식품점에는 당분간월·수·금요일만 배달)
—한국일보사—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팰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샵, 기프트샵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살權利」가 있듯이 「죽을權利」도 있는가

특집판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非生非死의 세계 生命論爭의 현장

금일 한국일보 모국판을 한국의 어린이날(5월5일)로 휴간, 대신 수요일자에 실리던 주간한국을 내보냅니다. (편집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 가는 일 못지 않게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 되어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태어나 한번 죽게 마련. 이렇게 보면 죽음은 누구나 겪는 평범한 길인지 모른다. 그러나 죽음은 한 인간의 삶을 마무리 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 이기도 하다. 죽음은 살아 있는 사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속해있다. 또 死後의 일은 20세기 최첨단 과학으로도 전혀 감을 잡을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더우기 죽음엔 고통이 따르게 마련. 모든 사람들이 「안락한 죽음」「의연한 죽음」「인간다운 죽음」을 바라고 있는것은 이때문이다. 그러나 최신의술의 발전은 이같은 안락한 죽음, 인간다운 죽음의 길을 날로 어렵게하고 있어 큰 사회적인 문젯점을 던져준다. 의술의 힘을 빌어 죽을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삶과 죽음 사이를 헤매는 반생명인간, 즉 植物人間의 수를 늘려 가고 있기때문이다. 사람은 살권리와 함께 죽을 권리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것도 여기에 있다. 특히 지난 3일 5년5개월17일간의 최장기 투병생활을 하다 끝내 유명을 달리한 전문교장관 柳基春씨의 죽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케 한다. 식물인간, 안락사, 죽음의 문제를 총 점검해본다.

◇의술의 발달은 많은 사람을 죽음 직전에서 건져냈으나 이에 못지않게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잃은 식물인간의 수를 늘려 큰문제점을 던져준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醫學발달로 「죽음延期」늘어 더悲劇
高等감각 잃은채 호흡·소화만 계속

〈植物人間〉글자 그대로 인간의감정과 의지, 사고, 기억등 고등기능을 잃어버린 식물상태의 사람을 뜻한다. 인간의 고등기능은 대부분 大腦皮質이 지배하고 있다. 이에반해 심장의 박동과 소화, 내분비, 호흡과 같은 植物기능은 視床下部가 지배한다. 따라서 식물인간이란 인간의 고등기능을 지배하는 대뇌피질이 기능을 잃은 상태. 이때문에 식물인간은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소화를 하지만 의식이 없다.

요즘 의술의 발달로 점차 이같은식물인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물인간은 뇌졸중을 비롯 연탄가스중독, 교통사고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뇌종양 약물중독등이 문제가 되고있다.

사람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삶과 죽음사이를 헤매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것은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뇌세포가 질서를 잃고 파괴되는단계와 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인간의 고등기능을 지배하는 대뇌피질이 가장 먼저 손상을 입는다.

다음 인간의 식물기능을 지배하는 시상하부를 포함한 腦幹(대뇌와 소뇌를 제외한 부분)이 손상을입는다. 이같은 時差로 해서 대뇌가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도 뇌간은 멀쩡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대뇌피질세포가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해도 뇌간이 살아있고 신체의 각장기와 세포가 건강하다면 조리만 잘하면 환자는 상태로 거의 수명을 누릴수도 있다.

식물인간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安樂死〉안락사를 가리키는 euthanasia는 「좋다」는 의미의 그리스語 「eu」와 「죽음」의 뜻인「thanatos」에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그뜻은 「좋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락사는 「고통없는 죽음」 나아가 「자비의 살인」이란 적극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안락사는 죽음의 고통을 덜수 없을까 하는데서 인류역사와 더불어 제기된 문제. 그러나 이같은 안락사의 문제가 큰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부터다. 의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난데다 식물인간상태의 사람이 날로 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엔 인간은 살권리와 함께 죽을권리도 자져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을 무한정 값비싼 병원치료를 계속케 함으로써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하고 엄마삼지못하고 결국 죽어갈 사람을 본인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견딜수 없기에 있다. 스위스는 환자가 높치병으로 확정되고 고통을 안락사 이외의 방법으로 면수 없을때 법의 관정을거는 고통을참으며 살아가도록 강요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다는데서다.

이때문에 안락사 주창자들은 「생명의 연장은 죽음의 연장」으로 이보다 비인간적일수 없다고 혹평을 서슴지 않는다.

스위스를 비롯, 몇몇 나라에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것은 여쳐 의사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

안락사는 소극적인 안락사와 적극적인 안락사로 나뉜다. 소극적인 안락사는 충분히 돌보게 되면 생명을 소생 또는 연장 할수 있는데도 손을 떼는 경우이고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을 투여 고통없이 죽음을 맞도록하는 경우다.

「좋은 죽음」「生命존엄」대립속에 몇나라선 法으로 安樂死 허용
나이따라 「두려움」달라… 心理상태 도와줘야

그러나 이들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의사는 환자편에서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선서의 의사윤리에 어긋난다. 또 생명의 존엄성을 인간의 손으로 좌우 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다는것. 이때문에 안락사는 贊·反 양론이 크게 대립되어 있다.

하지만 소극적인안락사는 어느나라에서고 흔히 일어나고있는것이 현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죽음을 보는 눈과 의사의 윤리도 시대에따라 크게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죽 음〉 인간의 죽음은 ①사회적죽음 ②정신적죽음 ③생물학적죽음 ④생리학적죽음등 4가지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

사회적죽음이란 정승집 개가 죽을땐 문상객이 들끓다가 진작 정승 자신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소생할수 없는 중병으로 해서 주위의 친구와 친지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상태를 가리킨다. 정신적죽음은 병이 심화되어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혼수상태 이고 생물학적죽음은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상태. 생리적죽음은 인간의 세포질서가 깨져 완전한 죽음에 이른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죽음은 이 4단계의 죽음이 동시에 오는것이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죽음자체보다 죽는과정에 한층 신경을 쓰는것이 보통이다. 자신의 처참해지는 모습을 보고 추태스럽게 죽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는것이다.

한편 사람이 죽음을 보는 눈은 연령에 따라 차가 난다. 사람이 죽음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는것은 10세전후. 이 이전엔 자신이 미워 골탕을 먹이려 숨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같은 생각은 커가며 복수심과 열등감을 빚기도 한다.

10세전후가 되면 죽음을 도깨비라든가 악마가 끌어 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올것이란 생각을 갖는다. 오지 못하는것은 죽은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같은 생각은 역시 커서 분노와 열등감을 만들지만 10세이전에 비해 훨씬 적어진다.

10세가 넘으면 죽음의 뜻을 비교적 정확히 알게된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생각도 연령에 따라 차가 난다. 사춘기는 인생을 즐기는 기술을 막 터득한 나이에 죽는것을 분해하고 청년기엔 건강한 자화상을 그리며 큰 뜻을 펴보지 못하고 가는것을 분해 한다.

중년기엔 일상생활이 차단될까 겁낸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내는 죽고나면 남편이 장롱속의 내의를찾아 입을수 있을는지를 두고 걱정을 한다.

노인이 되면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것을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이입버릇 처럼 빨리 죽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속마음과는 판이한것이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 하는것은 죽음이 ▲미지수의 일이고 ▲고독한 것이며 ▲친지와 가족을 잃게되고 ▲할일을 다하지 못하게되며 ▲신체기능이 말을 안듣고 ▲고통스러우며 ▲자신의 체면을 잃지않을까 생각하는데있다.

따라서 환자가족과 의사는 이같은 환자의 심리상태를 살펴 안락한 죽음을 맞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李光榮기자】

產業化 여파: 植物人間 늘어간다

전 문교부장관 柳基春씨의 죽음은 우리사회에 「식물인간」이란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식물인간」에 대한 의학적인 개념규정이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웬만한 종합병원에는 4、5명씩의 「식물인간」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운동신경의 완전마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의식, 지각기능까지 상실한 非生非死의 상태 속에서 수년씩 입원을 계속하고있다.

延世大의대 신경외과 李揆彰박사에 따르면 최근들어 「식물인간」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이유는 ▲사회의 산업화에 따라 뇌신경을 다치는 재해환자의 증가 ▲의료보험제도의 확장으로 의식마비 환자들의 생존기한이 연장된 것등으로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내 각 종합병원에 입원중인「식물인간」들은 대부분이 보험환자들이어서 몇년전 까지만해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에 엄두도 못냈던 경우라는게 병원측의 설명이다.

식물인간 그 자신은 자신의 고통조차 모르지만 생명을 연장시켜야하는 의사·간호원또는 간병인의 헌신적인 노력은 눈물겹다.

한국의 實態

종합병원마다 4~5명씩…희망없는 노력
看病하던 가족 失明·破産의 苦痛겪기도
慘狀직접보는 醫師는 安樂死 찬성많아

뇌손상환자들이 식물인간이란 판정을 받기까지는 대개 6개월정도 인것으로 의사들은 보고있다.

뇌손상환자들은 일단 입원이되면 뇌압측정, 뇌혈류량측정, 뇌컴퓨터검사등을 받으면서 관찰을받은뒤 6개월이내에 회복하지못할 경우에는 식물인간이란 판정을받게되는 것이다.

의사들에 의하면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보편화되기이전에는 월1백만원 이상되는 입원치료비를 마련할길이 없어 불과 2~3개월이면 『객사(客死)를 시킬수야 없지않느냐』는 명분으로 퇴원시켜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M병원 신경외과 林모의사는 요즘도 보호자들의 경제능력에 따라서는 2~3개월이 지난후 가망이 없으면 『최선을 다했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다.

식물인간을 가진 가정은 환자뿐아니라 온가족이 함께 앓아야한다.

柳장관의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K병원에 2년2개월째 입원중인 金모씨(55)도 같은사정.

의사로 근무중 병을얻은 그는 입원 1년6개월여가 지나자 곁에서 간호하던 부인마저 간호에지쳐 눈수술을 받고 한쪽눈을 실명하게됐다.

金씨가족은 환자에 대한 별다른 희망도없이 월1백만원의 치료비를 대느라고 허덕지덕하고있다.

H병원에 입원중인 K씨(49)의경우도 1년이 가깝도록 의식이없다.

자동차사고로 지난해 4월 뇌수술을 받고 목숨만 건진 K씨는 가해자측이 고용한 간병인 金윤중씨(52)의 도움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1년이 가깝도록 한시도 환자곁에서 떠나지않은 金씨는『날이 갈수록 꺼져가는 생명을 이어줘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한시도 환자곁을 떠날수없다』고 말했다.

『이젠 숨소리를 듣거나 안색을 보고도 환자와 대화가 통한다』는 金씨는 하루 24시간 쉴틈이 없다고 했다.

두시간이 멀다하고 호스를 통해 코로 음식물을 먹여줘야 하고 숨소리가 커지면 즉시 의사를 불러야 하고 때로는 레스피레이터로 가래를 빼내줘야한다. 온몸은 한두시간만 그대로 놔두어도 굳어져 뒤쳐여줘야하고 4지도 자주 주물러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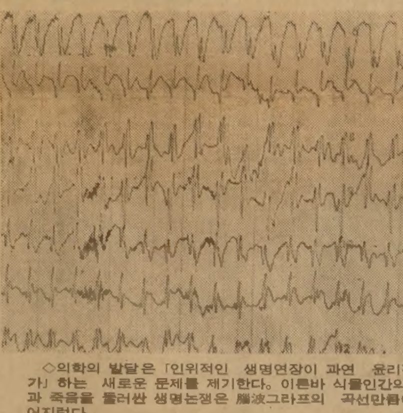
혈액순환이 잘안돼 피부가 곪는 욕창이 생기기 때문이다.

2평가량의방에서 환자를 돌봐주는 金씨는 월40만원의 간병료를 받고있지만 몇번이고 환자를위해『차라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끝을 흐렸다.

S大병원에서 9개월째 투병중인金모씨(21·여)도 마취이후 식물인간이 됐다.

남편이 20여만원의 봉급을 받아 생명을 이어가는 金씨는 간병인을 고용해 하루 9천원씩을 주고 있으나 밀린병원비만 1천만원이 넘고 간병인 봉급도 80여만원이 밀렸으나 회생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떠나지도 못한다』는 간병인 崔씨(49·여)는 『간간이 울부짖는 것 같은 외마디 소리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란』고 했다.



◇의학의 발달은 「인위적인 생명연장이 과연 윤리적인가」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른바 식물인간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생명논쟁은 腦波그라프의 곡선만큼이나 어지럽다.

그러나 모든 식물인간이 반드시 죽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H병원에 입원중인 任모씨(33·여)는 3년8개월만에 의식을 찾았다.

이 기나긴 세월동안 任씨를 간호해온 친정어머니 朴외祚씨(52)는 밀린 입원비 7천여만원을 빚으로 걸머졌지만 딸의 의식회복을 눈물을 쏟으며 감격해 하고있다.

任씨가 8차례의 뇌수술을 받는 동안 어머니 朴씨는 딸을 매일 목욕시키고 사지를 주물러주면서 한시도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8차례의 수술을 받을때는『내딸이 실험용이냐』며 화를 내기도 했고 치료비를 못내 약이 끊어졌을때는 통사정을 해 약을 얻어 먹이기도 했다.

소생에대한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없는 돈과 노력을 쏟아 넣어야하고, 또 그렇게해서 지속되는 환자의 생명이 과연 인간다운 삶의모습인가하는점에서 안락사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아직도 결론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구구 각색이다.

李揆彰교수는 한마디로『어떠한 경우에도 안락사는 있을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 생명의 신비는 신이 아닌 이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환자는 병원에서 끝을 마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鄭鍾雄박사는 직업인으로써 무척고통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의사로서 「터미널 스테이지」에 처한 환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환자를위해 한번쯤 안락사를 생각한다는 그는 5년전 국립의료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앙케트조사결과 의사의 40%가량이 안락사허용을 찬성했다면서 반대측은 대부분 치과·안과·피부과·소아과등 인간의 죽음을 실제로 다루는 기회가 적은 의사들이었다고 말했다.

【朴珍烈기자】

구독신청은 (416) 533·2361

▲사고▼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숯하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각종 골프장비 특별세일

LYNX, BENHOGAN, TITLEIST, POWERBILT, SPADING등 각종골프채와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제 HONMA를 취급하며 골프신발, 백, 카트등 골프에 필요 한 모든 장비를 한자리에서 구입하실 수 있읍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지도해 드리며 특히 여성초보자들을 위한 무료강습이 있으니 많은 여성초보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5월1일~5월31일)

MUNAMI TROPHY & SPORT 이 기 훈
880 ELLESMERE RD. SCARBOROUGH ☎ 298-3584

癌이 무너진다

世界의 抗癌전선…本社기자 現地리포트

미국의 癌병동들에는 어디에나 밝고어두운 두異面이 끊임없이 교차되고있는것을 볼수있다。

암이 드리우는 죽음의 세력과 이를 걷어올리려는 인간의 용력(勇力)이 마치 결전을 치르는 검투사들의 밀고 당김처럼 엇갈리고있는 것이다。

『암의 검은세력을 밀어내는 길은 더많은 人材、돈、정열을 쏟아 넣는것 밖에 없다。人材、돈、정열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 될수록 두터운 암의 커튼은 그만큼 빨리 걷힐것이다』

의학명문 존즈·홉킨즈大암연구센터를 찾았을때 세계적인 백혈병 전문의 조지·W·산토스는 존즈·홉킨즈의 人材、돈、정열은 癌약개발에 쏟아지고있다고 말하면서 『인류의 對암투쟁은 결국 새抗암제개발로 끝맺음이 날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존즈·홉킨즈大 癌연구센터

移植환자5%死亡

이미 존즈·홉킨즈가 거둔 수확도 대단한 것이라고 자랑했다。산토스교수가 주심이된 연구팀은 81년7월 아키크로빌(Acyclovir)이라는 일종의 안정제가 單式水泡性바이러스(HSV)를 치료한는 효과가 있는것을 발견했다。

HSV는 입、생식기、연한 피부에 水泡性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암환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 자주 희생되는 일이 있다。

골수이식환자의 경우 이식환자의 5%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 죽는것으로 집계됐었다。

산토스팀은 20명의 HSV보균자를 상대로 조사한결과 10명은 아키크로빌로 허피스·심플렉스가 완전히 통제됐고 나머지7명은 藥效가 미약했으며 다른3명은 투약중에는 HSV바이러스가 통제되다가 투약을 중단한후 3일부터 53일까지 다시 허피스·심플렉스현상이 나타났다。결국 아키크로빌은 HSV중I및II형에만 통제력이 있다는것이 밝혀졌다。

白血病에「集中투약法」85%治癒

20년 正論깨고 10일간격 再投藥

가장 難治의 골수암등 두달에 효과…다른癌에도 실험

白血球 죽지만 造血力남아 가능

癌정복 일대 진전

필립·J·버크교수가81년11월9일 미국립암연구소(NCI)에 보고한 白血病통제투약법도 암정복을위한 일대 진전이었다。

버크는『암세포는 白血球가 적을때가 속히 자란다』는한 단순가설에서 약물연구를 시작했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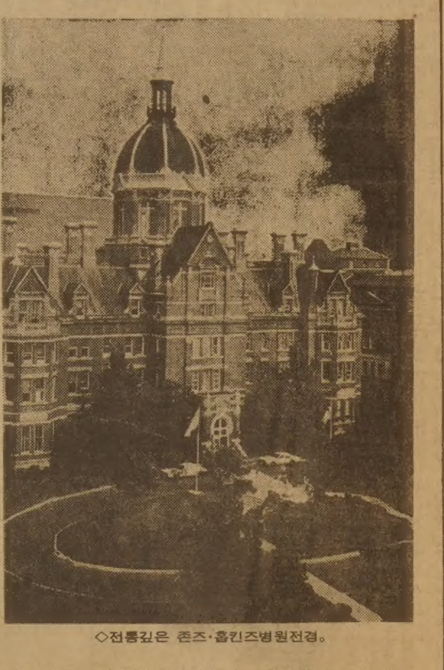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투약방법은 환자에게 일정한 투약을한후 환자의 면역력이 일정수준에 이를때를 기다려 재투약하는『안전투약법』을써왔다。

암약은 암세포를 죽이는 동시에 정상세포를 죽이므로 白血病환자의 경우 암약투약시 그렇지않아도 모자라는 白血球가 위험수준으로 내려가게된다。白血球가 적어진다는 것은 우리몸의 抗病力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위험이 커지는 것。

따라서 일정량의 투약을한뒤 환자의 白血球가 어느정도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 再투약했던것이다。

버크는 20년동안 通해온 正論을 무너뜨렸다。

그는 급성골수백혈병 (AML)약 아라비노실·시스토신(ara-C)과 다우노루비신 (DNR)을 백혈구의 정상복구를 기다리지않고 집중투약하는式의 과격요법을써 효과를 봤다。



◇전통깊은 존즈·홉킨즈병원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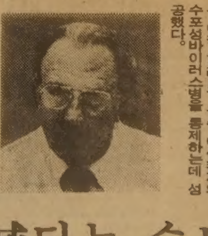
골수암환자에게 ara-C와 DNR을 3일동안 집중투약한후 10일동안 기다렸다가 10일째되는날에 ara-C를 再투약했다。

81년末현재 이같은 새투약법을 통해 AML환자 1백6명을 치료한 결과 60%가 치유돼 존즈·홉킨즈大의 白血病치료명성을 다시한번 반짝이게 하고있다。

3일간 ara-C DNR투약을 계속하면 암세포와 백혈구는동시에 致死상태에 이른다。그러다가 약효가 약해질때쯤인 投藥후10일경에는 백혈구가 거의 제로상태로되고 이틈을 타 癌細胞는 다시 왕성한 번식을 시작한다。이때 다시 ara-C를 재투약하면 암세포는 격살되는 것이었다。

이 과격투약요법에서 50세이하의 경우는 85%치유율을 보이는 개가를 올렸다。

존즈·홉킨즈大병원은 백혈병치유율이 높은 곳으로 명성을 얻어왔다。특히 최근에는 시애틀의 허친손암연구소와 긴밀한유대를 가지면서 자체골수이식수술 (Autologous Bone Marrow Transplantation)을 발전시켜 세계각처에서 많은 백혈병환자들이 모여들고있다。



◇백혈병 전문의 산토스교수。그는 아키크로빌로 골수 이식환자의 수포성바이러스병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人體면역능력연구

기자가 버크교수와 만나고 있는 동안 버크로부터 장기치료를 받아오던 백혈병환자 한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프랭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환자는 바로 존즈·홉킨즈大의 집중치료법의 혜택을받은사람의하나였다。

그는 外菌이 들어가지못하도록 통제된입원실에서 ara-C와 DNR의 집중투약을 받고 瀕死상태로 들어갔다가 10일만에 다시 DNR투약을 받았는데 이런式으로 2개월 치료받은후 백혈병증세가 가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력한 意志로 癌이 消滅되는 수도

골수암 (AML)은 백혈병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것。대부분의 환자가 2년이내에 죽는다。

그런데 버크는 집중치료법개발로 이골수암도『치료되는 분야』에 편입됐다고 말했다。

버크의 집중요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후 존즈·홉킨즈암연구진은 이 요법을 다른 암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암약의 과다투약으로백혈구는 죽지만 白血球를 만드는 造血기능자체는 손상받지않고 어느 일정시간후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것을 알았기때문에 다른 암도 이런 집중투약법을 쓰면 적어도 치료효과를 증대할수있을것이라는 가설을 잡게된것이다。

버크교수는 존즈·홉킨즈大암센터가 현재 크게 기대를 걸고있는 암정복노력은 면역요법이라고말했다。

인체구조는 본질상 암균을 죽일수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것이며 암이 커진다는것은 이면역기관의어딘가에 고장이생겼기때문이라는것。

인체해부를 해보면 사람에따라서는 小腸등에 암이 생겼다가 스스로 없어진 흔적들을 가끔 볼수있는데 이런 현상은 고장났던 면역작용이 어떤 계기로 정상이상으로 돌아온 결과라고 추리하고있다。

의사에 따라서는 이런현상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기려는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여、결과적으로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켰기때문이라고 보기도한다。(슐론·케테링암병원의 에드워드·비티의 論)

존즈·홉킨즈大병원의 역사를훑어보면 암센터의 새약개발노력이 거의 본능적인것임을 미뤄알수있다。

抗癌藥 20種개발

부유한 퀘이커교도였던 존즈·홉킨즈가 생애의 전재산을 병원건립에 내놓은것은 1889년。2백20개의 침대와 23명의 의사를 두고 시작했던 존즈·홉킨즈병원은 1893년 부속의과대학을 열어 미국에서 가장 먼저생긴『大學병원』이 됐고 수술시에 고무장갑을 가장 먼저쓴 일、비타민D의 발견、直接輸血시작、머큐러크롬의 발견、억제효소(Restriction Enzyme)의 발견등『세계 제일』을 기록한것만도 20種이나 된다。

癌의 커튼을 걷어올리는데도 존즈·홉킨즈는 세계제일의 기록을 세우려고 한다。

그 노력이 암센터전체를 지배하고있다。

궂은 비가 포도를 덮어 시꺼먼도시먼지를 씻어내려가던 그날、기자가 존즈·홉킨즈大 암센터를 찾아갔을때、영국신사풍의 공보담당관 리처드·펙이 보여준 친절과 인내를잊을수 없다。예일大출신인 그는 환자들때문에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의사들을 거의 애원으로 달래가며 기자와의 인터뷰시간을 지켜줬다。

【볼티모어(메릴랜드州)=鄭逸和기자】

美보건재단 새抗癌캠페인

치료는 어렵지만 豫防하기는 쉽다

어릴때 부터 禁煙등 교육을 肉類 짠음식 많이 못먹도록 위생관리로 건강균형유지케

美보건재단(American Health Foundation)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對癌캠페인을 벌이고있다。

뉴욕중심가인 이스트 43번가에 자리한 AHF는 1968년 슬론·케테링암센터의 전염병연구부장 언스트·윈더박사가 설립하여 그동안『암은 치료하기는 어려울지모르나 예방하기는 쉽다』라는 표어를걸고 건전한생활방식、식생활개선、암의 유발위험이있는 환경의개선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기자가 AHF를 찾았을때 설립자겸 이사장인 언스트·윈더는 마침 국제회의에나가 없었고 연구조정실장인 제롬·굿맨이 대신 설명역을 맡아줬다。

美보건재단이 구심점이 돼있는 보건학파는『암은 건강관리로 충분히 막을수있다』는 주장。

파스퇴르의 세균발견에서부터 근세의 페니실린생산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수많은 특효약을 만들어냈지만 이런 약들은 병든몸을 낫게는 했지만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는것。인류가 지금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있는것은 사실 과학자들이 찾아낸 특효약때문이 아니라 영양상태의 호전、위생관리의 향상때문이며 특히 암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쉽게돼 있다는 것이다。

굿맨박사는『자신의 몸을 가장 잘 치료할수있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암은 인체기능의 균형이 파괴될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건강하게만 관리해주면 막을수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HF는 특히 암예방캠페인을 어린이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담배피우는 버릇、고기 많이 먹는 습관등을 아예 어릴때부터 잡아주어야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이다。

굿맨박사는『어린이에게 폐암으로죽어간 환자들의 X레이사진을 보여주며 담배라는것이 얼마나 해로운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고기 많이 먹어 풍풍해지면 이런저런 변이온다는 것을 어린이에게 가르쳐 주면 이들은 평생동안 건강을 조심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AHF가 벌이고있는 어린이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79년『네몸을 알라』(Know Your Body)는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0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에게『암을 막는 건강법』이란것을 가르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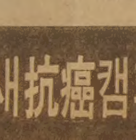
81년末현재까지 4만명의 어린이에게1주일의교육을시킨후 건강수첩을만들어줬다。

AHF가 경영하는 병원 또는 자매결연을 맺은 전국 3백개의 종합병원을 통해 어린이건강검사를 시키고 혈압、키、몸무게、시력등을 우선 기록케한다。어린이들은 교육을 통해 담배는 그속에 들어있는 타르와 니코틴이 폐암을 일으키는 위험성을 갖고있으며 이외에도 방광암、콩팥암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지나친 술은 우리몸의 抗병력을 약화시켜 건강한경우라면 저절로 없어질수도있는 암증세의 진행을 도운다、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등固體性육류를 많이 먹으면 육류소화를위한 담산(膽酸)의 분비가 과잉돼 결국 直結腸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여자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유방암、자궁암이 많이 걸린다 등등의 건강교육을 조목조목 일러주고 직접 자신의 건강표를 기록하도록 한다。

굿맨박사는『어른들의 버릇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버릇을 들지않게하는 일은 쉽고도 확실한것』이라고 말하면서 AHF의 어린이암예방 교육이 커가는날 암은 드디어 지상에서 사라질것이라고 자신했다。



◇美보건재단 연구조정실장 제롬·굿맨박사。

AHF는 81년5월 美、英、伊、스웨덴、핀란드 등 세계15개국의 13세어린이 5천3백명을 상대로 건강실태조사를 한바있다。

조사결과 쿠웨이트 남자어린이는 전체의 13%가 하루에 한개비이상의 담배를피우는상습흡연자로 밝혀졌다。상습흡연율이 둘째로높은 것은 유고슬라비아의 여자어린이로 전체의 10%。

가끔 담배를 피우는경우는 프랑스남자어린이가 38%로 가장많고 다음이 西獨과 프랑스여자어린이로 30%。

고혈압의 主因인 코레스테롤수치는 핀란드어린이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노르웨이、쿠웨이트、西獨、네덜란드、유고슬라비아順으로 돼있다。

이 조사를 미뤄보면 西方선진국어린이는 13세전후에 이미 암、고혈압등을 끌어들일 강력한 誘因을 갖고있는것이다。

『세살적부터 건강교육을 시키지않으면 인류도 암의 침공으로부터 결코 이기지못한다』는것이 굿맨박사의 결론이었다。

미전국의 1년 총의료비는 약2천억달러。개발도상국내지 저개발국의 국민소득수준으로보면 거의 천문학적숫자인데도 미국의 암사망자가 세계어느나라 못지않게 많은 점을볼때 어린이 건강교육은 그만큼 중요한것이라고 제롬·굿맨은 강조했다。

美보건재단은 69년 발족한후 生藥연구、질병연구、실험조사、치료및 봉사、건강경제및 공공교육등 7개부서를 운영해오면서 연7백만달러의 예산을 쓰고있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88

평양으로、사리원으로、해주으로、원산으로 출장을 갔다。때로는 인수한 트럭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2주나 3주일간 한지방에서머무르는때도있었다。노선답사와 수송량자의 분석、그외에도 운영의 합리성을 조사하고 돌아 온다。

원산 기꾸야 (菊屋) 여관에 2주일이상이나 유숙하던 때다。우연히 밤거리에 나섰다가 그레타·가르보의 인상깊은 영화「크리스티나女王」(Qeen Christina)을 또한번 봤다。루벤·마무리안감독의 작품으로 가르보의 상대역으로는 존·길버트가 스페인王의 특사로 나온다。그레타·가르보는 MGM이 길러낸 세계적인 여배우다。두번째로 보는 영화이기는하나 그 신비함에 또한번 끌려드는 마력같은 것이 있다。백설의나라 스웨덴의女王크리스티나가 스페인의 젊은이를 사랑한다는 정열의 영화다。

外地서 映畵에심취

사랑하는 애인의 시체를싣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항구를 떠나는 라스트 신에서 관객들은 인간사회의 고귀한 애정을 마음아프게 느끼게된다。

『새울고 꽃피는 남북단의 나라 스페인으로 가련다』

미모의 젊은 女王크리스티나의 마지막대사가 더욱 이 영화를 압권

長期出張중엔 극장찾아 名畵다시보고 旅愁달래

감케한다。60년의 歲月이 흘렀어도 그레타·가르보의 신비스러운 연기에 매혹했으리라 믿는다。스웨덴이 낳은 위대한이 배우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많은 MGM영화를 다채롭게 했다。지금은 조국으로 돌아가 조용한 만년을 보내고 있다한다。

내영화생활의 생애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여배우로는 가르보를 꼽지 않을수 없다。그가 출연한 작품들은 거의 명작들이다。「안나·카레니나」、「안나·크리스티」、「인스피레이션」、「로맨스」、「마타하리」、「마담에스카」、「크리스티나女王」등 작품마다 그녀의 신비스런 개성과 특징이 잠겨있어 기억을 새롭게 한다。

스턴버그의 작품「모로코」의 라스트 신도 인상적이다。데이트리히가 문명사회의 상징인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사하라의 熱砂위를 로맨스·외인부대 여성들과 함께 사랑하는 외인부대의 오장(伍長) 게리·쿠퍼의 뒤를 따라가는 그 장면은 영원히 잊을수가 없다。

샐러리 맨으로 출장을 다니는 일은 생활의 방편이기는 했으나 여행을 한다는것은 정서를 풍요하게 해주어서 좋았다。내 인생의 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로였다。

「모로코」라는 영화때문에 내인생의 중대한 일을 그르친 일도 있으나 밤늦게 여관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그릇된 것이 오히려 잘된일같다。「모로코」의 외인부대는 마치 동경에 유학하는 조선학생들의 환경과도 같다。나라없는 쓰라림속에서 천대를 받고、주체성을 박탈당한 서러운 모습으로 목적의식도 없이 살아야하는 그런 우리네 생활이 마치 생명을 내걸고 자포자기의 구렁텅이속에서 뜨거운 열사위를 걸어가는 그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고요하게 사색할수 있는 여행길에 오르면 나는 늘 현실에 처한 내 젊은 한시절을 이렇게 값없이 살아

◇1930년의 영화「모로코」의 한장면。출장중 이 영화를 비롯해 그레타·가르보 출연의 영화들을보며 나라없는 설움과 여수를 달랬다。

女優 그레타·가르보의 演技에매료 「모로코」관람땐 亡國의 恨 되살려

가야 하는가 생각해보곤했다。이때마다「크리스티나女王」과「모로코」를 생각했다。라스트 신의 오묘한 감명들이 꼬리를 물고 연상된다。페페가 부르는 최후의 절규가 뱃고동소리때문에 가비는 그것을 듣지못하고 선실로 사라지는「望鄕」의 라스트신도 떠오른다。영화를 해보고싶어도 그것을 꿈 씹듯 같이 던져버려야하는 일제하의 샐러리 맨이 쓸쓸하기만 하다。언제까지 이러한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회사일에 충실해야 하는 내자신이 모로코병정같이 가엾기도하다。

가요곡가사를 재치있게 쓰는 金蛭이라는 친구가 원산에 산다。그는시를좋아하는청년이다。그와 만나서 음악도 문학도 다좋지만 우리들의 사상을 최고의 표현력으로 전달할수 있는것은 영화라고 역설했던일이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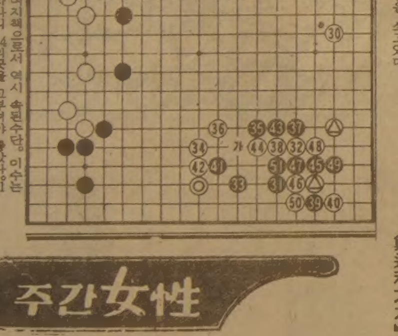
「크리스티나女王」과 「모로코」를 예로 들어서 영상의 매혹적인 신비성을 얘기했다。그가 문장으로 표현하는 뛰어난 시의 기법에 감탄을 보내면서 나는 다음과같이 설명했다。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장·콕토도 영상의 표현은 문장에 비할것이 아니라해서일찌기이전위영화「詩人의 피」를 만들었다고。시집「알라딘의 램프」를 위시해서 희곡「에펠탑의 신부」등을 냈으나 결국은 후일 영화작가로 변신한 문인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 第4譜 29~51 (각5시간 덤5집반)

白 (7段) 河燦錫〈3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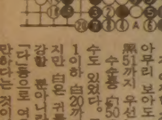
黑 (6段) 徐能旭〈2勝3敗〉



우하귀△표의 目字궁에 대항하려는 黑29에 대하여 白30자리를 차지한 河7단은 긴장되었던 표정을 풀었다。우하일대는 ◎표와 白30으로 양날개를 편듯。누가보아도 이상적인 진용이다。

黑31은 7분。徐6단은 자신만만하게 白세를 삭감하기 시작한다。그러나 이곳 공방전에서 黑은 보조가 흐트러졌다。우선 黑35는「가」의 곳에 뛰어나가야 正手。당장 白36을 당하자 黑은 다음의 응수가 난처하여 徐6단은 15분이나 부심했다。

黑37이 임시의변통수단이었으나 白38에 밀고 40으로 젖혔을때 黑41은 궁여지책으로서 역시 속된수다。이수는 차라리 44의곳을 꼬부려야 좋았다。41은 원래 43쪽을 이을요량으로 두어본 것인데 白이 44로 아주 뛰어나오자 또한번 입장이 난처해지고 말았다。



자 어쩌할 것인가。黑은 비상이다。아무리 보아도 黑이 위험한 싸움인데 黑51까지 우선노타임으로진행되었다。수순중 白50으로는 51자리를 잡을수도 있었다。즉 참고도의 △표면 黑1이하 白20까지「A」의 곳에 패가나지만 白은 귀를 포기해도 외세가 막강할 뿐아니라 패감도 실전보「나」「다」등으로 여유가 있으니 한번 해볼만하다는 것이다。【一凡】

주간女性

깜빡 죽여주는 해장국이 드디어 나타났읍니다.

◐개시일 : 4월29일(목)부터

◑가격 : 5불 50

정말 맛있는것 같애요…

맛으로 해결해 드리는 —<순대도 있읍니다>

한 국 관 대표 : 나옥녀

•영업시간• 오전9시~새벽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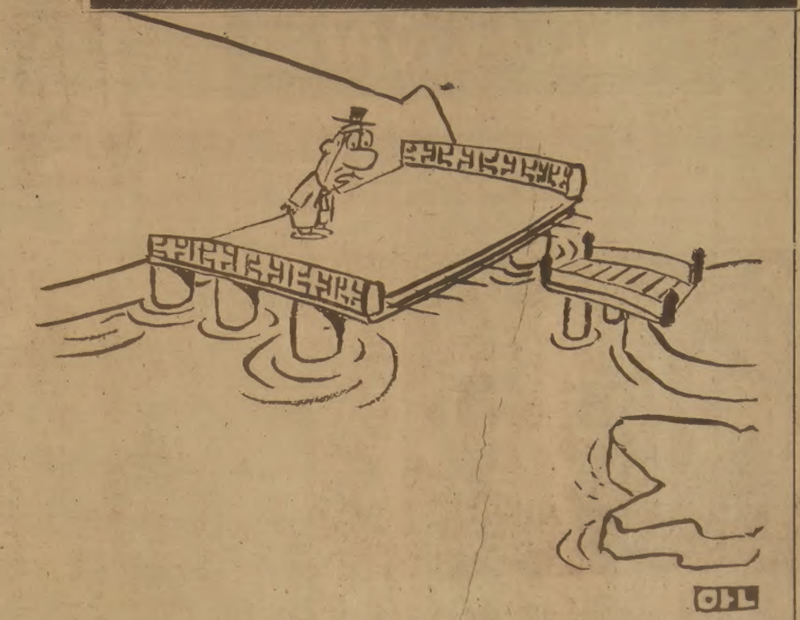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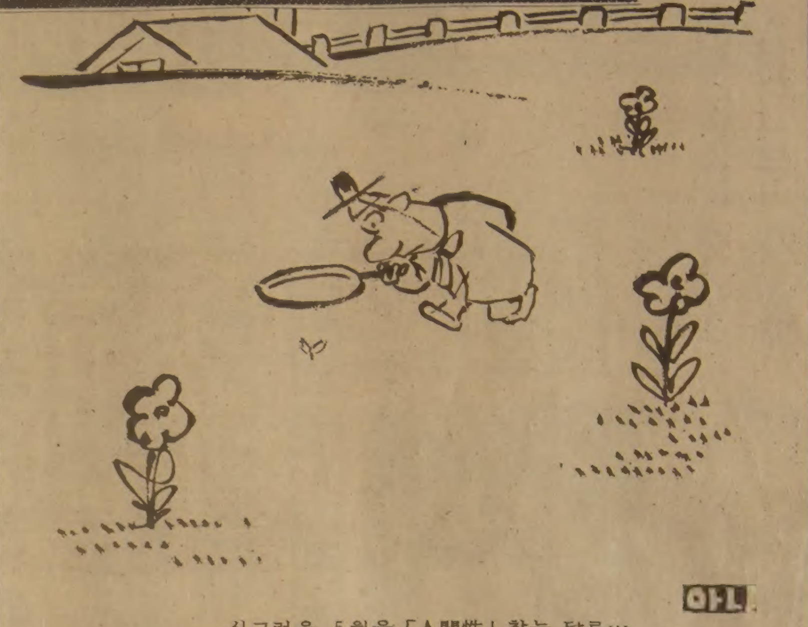
※언어 학습기구를 이용해서, 당신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당신집에서 3개월간 배울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일하거나 바빠 학교에 다닐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SAVE-O-WAY AD. CO. 533—7324, 533—4966

안의선 時事 칼럼



經協과 規模와 거리와…

두꺼비 漫評



싱그러운 5월을 「人間性」 찾는 달로…

숨은그림 찾기

文壇생활 2년만에 요절한 金裕貞의 「소나기」에서

■숨은 그림
열대어 식칼 송곳 은행잎 모자 한국지도 야구방망이 우유병 호루루기 컵 프라이팬 버선

◇金裕貞

그는 마음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집으로 달려들었다. 봉당으로 뛰어 오르며
『쇠돌엄마 기슈?』
하고 인기를 내보았다.
물론 담자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그 음성이 나자 안방에서 이주사가 번개같이 머리를 내밀었다. 자기딴은 꿈밖이라는듯 눈을 두리번 두리번하더니 옷위로 벌거진 춘호 처의 젖가슴, 아랫배, 넓적다리, 발등까지 슬쩍 음흉히 흝어 보고는 거나한 낯으로 빙그레 한다. 그리고 자기도 봉당으로 주춤주춤 나오며,
「쇠돌엄마 말인가? 왜 지금 막 나갔지.
곧 온댔으니 안방에 좀 들어가 기다렸으면…」하고 매우 일이 딱한듯이 어름어름한다.
「댁에 또 오지유.」
「아닐세, 좀 기다리게. 여보게, 여보!」
춘호 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가가 올랐다. 이렇게 솔깃한 기회는 두번 다시 못볼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혀 길에 튤었던 장죽을 쭉 뽑아 방안으로 치뜨리고는 게집의 허리를 다짜고짜 끌어안아서 봉당위로 끌어 올렸다.
—作品중에서 〈구성 權大雄〉

「한국名作」속의 숨은그림 찾기

서정詩人 金素月의 「진달래」

■숨은 그림
낚시찌 장총 낚시바늘
여우의 머리 잉크병 둫
단배 오리 칠판지우개
국자 딸기 촛불

◇金素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라.
〈구성·權大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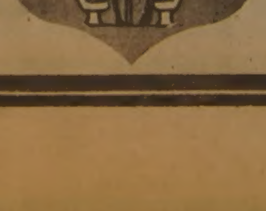
巨龜莊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흥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영업시간〉 월·화·수: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한국일보 事件기자는 말한다

신문에 안난 現場

<취재 放談>

10대소년이 친구를 독살하고 금품을 털었다. 또다른 2명의 10대 소년들이 택시강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황당무계한 20대청년들이 大宇그룹의 金宇中회장과 明星그룹의 金澈鎬회장을 협박, 돈을 요구하다 붙잡혔다. 宜寧 禹순경난사사건이 신문지면을 크게 차지한 주였던만큼 활자화 안된 사건기사가 많았고 기사화됐더라도 요지만 간단히 보도된 사건이 많았다. 이번주에는 한국일보社 사회부사건기자중 方旼俊, 朴珍列 두기자가 宜寧현지로 출장가 4명의 사건기자만이 방담에 참여했다. 방담에 참여한 기자는 다음과같다.

▲鄭崇鎬 ▲姜秉泰 ▲鄭在龍 ▲金宗來

□財閥會長 脅迫 유행

▲A=大宇 金宇中회장에게 공장폭파 위협을 하며 1억원을 요구했던 20대가 약속장소에 잠복중이던 大宇경비원들에 의해 붙잡힌 사건에 이어 지난 27일엔 明星 金澈鎬회장을 위협, 5억원을 요구한 20대청년이 붙잡혔다.

▲B=재벌총수에 대한 협박사건이 유행을 타고 있는 셈인가?

▲A=젊은이들의 의식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한탕주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같아 씁쓸한 여운이 남아 있는 사건들이지.

"첫눈에 반한것이 罪나"

길가던 大學生 미모의 女店員 보고

求愛작전 2일만에 영업방해 혐의

▲C=大宇 金회장 협박사건은 사건자체보다도 뒤에 얽힌 사연이 더 많았다.

▲A=범인 金榮鎬(20)은 대학편입에 필요한 등록금 마련을 위해 2차례 협박편지를 보냈었는데 大宇측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채 전직 총경출신의 방계 D공영상무 安모씨를 팀장으로 대책반을 편성, 범인이 지정한 종로서적센터를 여러 차례 답사까지 하면서 범인을 잡을 작전계획을 짰다.

▲B=애초 어설픈 풋나기의 소행이어서 쉽게 잡혔다.

▲A=大宇실업의 관할경찰서는 南大門서인데 大宇측은 범인을 J경찰서에 인계하면서 보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했다. J서의 형사계장은 범인이 검거된날 『大宇회장 협박 사건이 있는데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귀띔했다. 하루를 기다렸다가 형사계장에게 다음날 저녁 사건전모를 캐물으니 『잘못된 정보였다』고 잡아뗐다. 워낙 강경한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물러섰다.

▲C=23일밤 범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 됐고 이 영장이 야근 기자에게 체크되어 사건이 기사화됐다. 야근을 한 D형에게 물어보니 경찰서까지 달려가 보충취재해 상보를 보도했다는 것이다.

▲A=J서 담당인 나로서는 특종기사를 놓친것이 창피했다. 수사간부말이 『신문기자가 나가자 安모상무가 얼굴이 파래져 달려왔다』는 것이다. 사기업에 몸담고 있는 선배의 입장을 봐주려고 했으나 본의 아니게 기사가 보도돼 상당히 마음 아팠던 모양이다.

▲D=明星 金회장 협박사건은 희극적인 면도 있다. 범인 李鉉宰(21)는 仁川 H공고를 2년전에 졸업, 장사를 하다 실패하고 작년말 13년 연상의 여자와 결혼했다. 생활비에 쪼들리자 황당무계한 협박사건을 꾸민것으로 밝혀졌다.

▲B=李는 지난27일 상오 10시30분께 鍾路구雲泥동 삼환기업빌딩 5층 明星그룹 金회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비서실장에게 『중앙종합개발 미스터 李인데 浦項에 싼 땅이 있으니 살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비서실장이 거절하자 10분후 다시 전화를 걸어 『金회장과 가족을 살해하려는 조직의 일원인데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엄청난 계보를 했다.

<삽화·權大雄>

□喜劇的 협박

비서실장이 『직접 회사로 와서 얘기하자』고 말하자 李는 10분후 비서실에 나타났다.

▲C=회사측은 李를 2층 구매본부 응접실로 안내, 구매본부 朴이사와 대좌토록 했는데 李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총, 사제폭탄, 독극물까지 준비, 金회장을 노리는 음모의 내막을 알려주겠다. 경찰에 알리지 말고 5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朴이사가 『금액이 너무 많다』고 말하자 범인은 1억5천만원으로 깎아주는 선심(?)까지 쓰며 2시간가량 버티다 회사측에서 은밀히 112신고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B=지난 24일 서울신탁은행 종암동지점 창구에서 申모씨(36·여)가 예금잔고 표시 5백원을 7천9백만원으로 변조한 온라인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4백만원을 인출하려다 발돼 경찰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C=申씨는 경찰에서 『전날밤 정릉청수장여관으로 가던 택시안에서 만난 남자가 준것』이라고만 우기다가 결국 사기당해 손해본 액수를 메우기 위해 범행을 행한것으로 밝혀졌다.

□예금통장 변조

申씨는 「중동에 취업갔다 온 기술자」를 사칭한 30대 남자를 카바레에서 만나 정을 통해왔는데 이날 밤도 카바레에서 춤을 춘뒤 청수장여관에서 함께 하룻밤을 즐겼다. 이 남자가 『내일 중동으로 다시 떠나는데 예금찾을 시간이 없으니 돈을 꾸어달라』면서 예금통장을 맡기고 돈(36만원)을 빌어갔다. 이 예금통장이 변조된 것임을 申씨도 나중에야 알게된 것이고 몸주고 돈까지 뺏긴 것이다.

▲D=지난 24일엔 길을 가다 여자점원의 미모에 끌려 2일간 끈질기게 구애를 하던 대학생이 가게주인의 신고로 「영업방해」혐의로 즉심에 넘겨졌다. Y대정외과 1년 朴모군(19)은 지난20일 하오3시께 종로구 모전자대리점 앞을 지나다 점원 林모양(17)의 미모에 혹해 다짜고짜 가게안으로 들어가 『친구로 사귀자』며 2시간을 졸랐다. 林양의 냉담한 반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朴군은 다음날 친구1명의 지원사격까지 받아가며 2시간을 또 구애작전을 폈으나 주인 姜모씨가 보다못해 경찰에 신고, 붙잡혔다. 朴군은 『얼굴이 너무 예뻐 사귀려고 했는데 무슨 죄가되냐』면서 어른들을 원망하기도.

신문에 안난 現場

"엄청난 犯罪 조직 제보 하겠다, 5億원 내라"

무서운 10代…용돈궁해 친구 毒殺하고 금품털어

선생의 무단 결석 꾸중에 飮毒자살한 中1生

□감정나쁜 친구죽여

▲A=서울 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용돈이 궁해 평소 감정이 나빴던 친구를 독살하고 금품을 빼앗았던 趙모군(18)을 강도살인혐의로 구속했다. 趙군은 지난23일 밤11시께 城東구聖水동2가 약초원 연립주택202호 친구 趙在鎬군(19·야채상)집에 놀러와 맥주를 함께 마시다 趙在鎬군이 화장실에 간 사이 맥주병안에 몰래 극약을 타넣어 趙在鎬군이 이를 마셔 숨지게 한 것. 趙군은 趙在鎬군이 숨지자 손목시계, 신사복 상의, 현금등 5만여원어치의 금품을 챙겨 달아나 숙부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잡혔다. 경찰에서 趙군은 『숨진 趙군이 평소 자주 모욕을 주어 감정이 나빴는데다 용돈이 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D=26일 밤 9시30분께 城東구 九宜동 240앞길에서 서울4파3100호 포니택시(운전사·李昌德·55)를 타고가던 諸모군(18·공원)과 金모군(19)등 2명이 李씨를 등산용 칼로 위협, 현금 2만7천2백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순찰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B=麻浦경찰서는 지난 29일 『체칭 1류학과로 전과를 시켜주거나 나제과목의 학점을 따도록 학교측에 주선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교제비를 가로챈 서울 M대학 李東燮군(28)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李군은 지난80년6월 M대학체육과 재학중 태권도부장을 지낼당시 건축과2년 朴모군(26)에게 『재단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경영학과로 전과시켜주겠다』며 교제비조로 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 학교학생 3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전과나 학점을 따도록 해주겠다며 2백50여만원을 받아 유흥비등으로 탕진해왔다는 것이다. 李군은 81년9월 제대후 복학한 아랍어과3년 韓모군에게 『졸업정원제가 돼 군에 가기전 나제한 과목이 있으면 탈락될 위험이 크다』고 속여 韓군이 1학년때 나제점수를 딴 교양국어등 8학점을 교수에게 얘기해 점수를 따주겠다며 1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불량배피해벼랑서추락

▲D=28일 하오8시께 서울西大門구弘濟3동 304의93 權善玉여인(35·행상)의 장남 田모군(13·S중1년)이 극약을 먹고 신음중인 것을 누나가 발견,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누나에 따르면 田군은 이날하오8시께 밖에서 힘없이 들어와 저녁도 안먹은채 『담임선생님이 무섭다. 학교 안간것이 겁난다』고 말해 수상히 여겨 다그치자 『유산균음료에 약을 섞어 마셨다』면서 음식을 토하고 방바닥에 쓰러졌다는것. 田군은 지난24일 소풍때 음식에 체해 26~28일 3일간 무단결석을 하고 집에서 요양중이었는데 28일 하오5시30분께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무단결석을 꾸짖고 학교에 나오라고 말했다는것. 田군은 전화를 받은뒤 2시간반동안 정확에서 혼자 울며 해매다 학교를 파하고 돌아온 친구들에게 결석계를 못낸것을 걱정했다는것.

▲C=28일밤10시40분께 鍾路구昌信2동595의151 벼랑길에서 李모양(19·공원)이 불량배의 추행을 피하려다 15m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李양에 따르면 공장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20대 청년이 다가와 『할 말이 있다』기에 멈췄더니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 벼랑아래로 데려가 추행하려해 이를 피하다가 떨어졌다는 것.

D=28일 새벽4시께 永登浦구新吉1동117의1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음교회(목사 吳成稷·46)에서 안수기도를 받던 安금숙씨(30·경기始興군軍浦읍당리 299)가 높이 4m의 옥상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신음중인 것을 방범대원 李기열씨가 발견,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한국일보 事件기자는 말한다

"轉科시키고 학점 따 주겠다"속여 돈뜯은 대학생

高2生의 級友 폭행에 수백명 학생 지켜만 보고

손발 묶인채 정신질환 안수기도 받은 여인 숨져

吳목사의 부인 睦鎭子씨(47)에 따르면 신경쇠약 증세가 있는 安여인은 27일저녁8시께 손발을 여자 허리끈으로 묶인채 자신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은뒤 28일 새벽2시께 잠이 들었다는 것. 安여인은 27일하오5시께 교회신도이며 사촌 언니인 權정자씨(35)의 소개로 吳목사가 직접 교회로 데려와 정신질환을 고치는 안수기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吳목사는 안수기도로 정신질환을 낫게할수 있다고 선전, 사고당일 교회안에는 安여인 이외에도 남자3명, 여자1명이 철야기도를 하고 있었다.

□보컬그룹 同僚찔러

▲C=28일 밤10시30분께 恩平구水色동164 廉동석군(20)이 보컬그룹 동료 李현경군(20)과 말다툼끝에 부엌칼로 李군의 목을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廉군은 이날 李군과 함께 술을 마신후 자취방에 들어와 싱을 신으며 『왜 보컬그룹을 탈퇴하려하느냐』며 시비를 걸다 식칼로 李군을 찔렀다는 것. 이들은 올해 S고교를 졸업하고 「스몰·파크」란 6인조 혼성 보컬그룹을 만들어 서울·蔚山등지에서 공연해왔다.

▲D=지난 27일 하오2시께 K상고 2년 牟모군(16)이 재크나이프로 급우 姜모군(15)의 가슴과 등을 찔러 중태에 빠뜨린뒤 달아났다. 牟군은 2학년이 되어 야간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 사귀게 됐는데 여학생과 만나려면 결석을 자주해야 했다. 학교측에서 자퇴하라고 했는데 친구 姜군이 고자질한것으로 오해해 姜군을 마구 찌른것. 범행당시 1·2층에서 수백명의 1·2년생들이 있었는데 지켜만 보고 있었다.

▲A=29일 江西경찰서는 金仁澈씨(27·전과5범)를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江西구新月동28 포장마차에서 친구 李모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李씨에게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는데 다이너마이트 20g짜리 3개와 뇌관3개도 집에서 나왔다.

金씨는 경찰에서 전과5범이라 보호감호처분 대상이 되는데다 사귀던 애인 申모양(24)까지 자기를 버리고 도망쳐 지난해 12월중순 漢陽大앞 지하철공사장에서 훔친 다이너마이트로 자폭하려했었다고 말했다.

▲D=27일 야근때 永登浦경찰서에 도착하니 탤런트 李純才씨(48)가 형사계에 들어와 있었다. 이날 0시40분께 드라마 「풍운」녹화를 마치고 귀가하던 李씨가 5·16광장 서쪽을 건너던 申영철군(20)을 치어 중상을 입혔기 때문. 코미디언 徐永春씨의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얼마 안된후라 李씨는 상당히 당황해했다.

▲B=26일 밤11시50분께 中구西小門동21 효성빌딩앞 지하철2호선619공구(시공업체 극동건설)공사장에서 3백㎜ 상수도관이 터져 교통이 차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사고는 낡은 수도관의 연결부분이 공사기간중 차량 진동등으로 느슨해진데다 야간에 갑자기 수압이 높아지면서 틈새가 벌어져 일어났다.

▲A=지난 3개월간 서울에서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떼따기 수법으로 소매치기한 대전파 소매치기 일당중 李圭星(26·전과3범)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서울시경에 의해 구속되고 두목 許진룡등 3명이 수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초 대전파 소매치기단을 조직, 지난23일하오5시30분께 新村로터리 부근에서 버스승객 李明秀양(24·기아서비스센터 경리 직원)의 핸드백에서 은행도·약속어음13장(1천9백90만원)을 소매치기하는등 新村과 鍾路동 버스정류장에서 2백50여차례 소매치기해 왔다는 것.

<기록·정리 康元久기자>

海外토픽

下宿집 딸들 未婚母 늘어
임신시키고 줄행랑 빈번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요그야카르타에서는 하숙생들이 주인집 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뒤 뺑소니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 미혼모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의 한 신문이 보도.

이 신문에 따르면 하숙생들과 주인집 딸들이 결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녀를 임신시켜 놓은뒤 뺑소니치는 학생의 수도 점차 늘어나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것. 요그야카르타에는 각종 대학들이 많아 해마다 하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딸을 둔 부모들의 근심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것. [산]

가라앉지 않는 배 發明

로베르토·체리스라는 필리핀인이 최근 가라앉지 않는 배를 발명했다고.

필리핀 통신에 따르면 길이 9·1m, 폭 3·1m, 높이 2·6m로 25명까지 태울수 있는 이 배의 바닥은 2개의 평행 쇠파이프와 나란히 된 여러 개의 칸막이 교차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현재 마닐라 요트클럽에서 전시되고 있다는 것. [韓]

누드 모델 出演女警 혼쭐 나

플레이보이지에 누드모델로 출연, 물의를 빚은 미국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의 여자경찰관 바바라·산초양(25)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문책으로 무기 정직처분을 받았다.

시경당국자는 산초양이 봉급정지와 함께 무기 정직에 처해졌다고 밝히고, 비록 전라는 아니나 플레이보이지에 모델로 출연해 역시 문제를 일으킨 남자 경찰관 1명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外]

印서 매년 4만명 自殺기도

인도에서는 매년 4만여명의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큰 동기는 「빈곤」이라고 인도 정부의 한 보고서가 지적.

이 보고서는 또 그밖의 자살이유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불화, 실연, 부부싸움, 빈곤, 광증, 재산분쟁, 시험실패, 명예손상, 실직등이라고 지적.

한편 인도전역의 도시중 최하의 자살건수를 기록한 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캘커타라고. [外]

未決囚들 간수 만취시키고 탈출

마닐라 근교의 한 형무소에서 최근 강도죄와 불법폭발물 소지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9명의 미결수들이 2명의 담당 간수들에게 술을 권해 곯아 떨어지게 한 후 형무소를 탈출했다고.

이들 간수들은 몰래 술을 사서 수감자들과함께 마셨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바로 옆감방의 죄수들은 간수1명이 술을 마신 뒤 잠에 곯아 떨어지기전 몽롱한 정신으로 죄수들에게 감방 열쇠를 전해줬다고 증언.

한편 경찰당국은 이 간수들이 사건당시 술취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죄로 구속. [AP]

◇아슬아슬한 수영복대회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illegible]·스토어·바에서 열린 수영복대회. 봄방학을 맞아 각 대학에서 몰려든 대학생들이 20년간 계속 수영복대회를 열고있는 이 바에서 즐기고 있다. 1등을 한 아가씨는 상금 50달러를 받는다고.

얘기의 샘

개발에 편자

어떤 친구가 독서를 많이한 것을 뽐내자, 철학자 아리스티포스 왈(曰) 『필요이상으로 음식을 먹고, 무턱대고 운동을 한다고해서 인간이 건강해지는가. 그것과같이, 책을 읽은만큼 현명해지는 것도 아니야.』

살아있는 流星

영국의 사우스실즈에서 사업에 실패한 시톤의 부친은 식솔을 모두 이끌고 캐나다로 이주했다.

시톤형제는 거기서 처음 반딧불을 보았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이게 바로 반딧불이라는거다』라고 가르쳐 줄때까지는 그것이 유성(流星)인줄로만 알고, 그저 경탄(驚歎)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HOPE YOU SAVED ROOM FOR DESSERT.

room 하면 방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것 같다.

미국인 가정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은 한국분에게 식사가 끝나자 hostess(여주인)가 Do you have room for dessert? 이같이 물어왔다.

dessert가 후식이라는것정도는 알았는데 room이 무슨 뜻인줄을 몰라 횡설수설해 버렸다는데 이 문장에 들어있는 room은 space즉「공간」「여유」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뱃속에 디저트를 먹을 공간이 있는가 즉「디저트를 먹을수 있는가?」의 뜻으로서 참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아이스크림을 먹을수 있겠는가?」를 room을 넣어 영작해본다면 Do you have room for ice cream?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를 탈때도「자리가 충분히 있읍니까?」라고 물어볼때 Do you have enough room? 하면 되고「우리가 옮겨 앉으므로 당신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We'll move over and make room for you. 라고 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공간이나 여유를 뜻할때는 room앞에 부정관사 a가 붙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방을 나타낼때는 hotel 같은 곳에서「오늘밤 투숙할 방이 있읍니까?」라고 물어보는경우 Do you have a room for tonight? 같이 부정관사가 들어가 a room이라고 하는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A : I hope you enjoyed your meal
B : Yes, it was delicious.
A : Thank you. I hope you saved room for dessert. I have a fresh apple pie in the oven.
B : I'm so full, but that sounds too good to pass up.
A : Would you like to wait a little while before having pie and coffee?
B : Yes, if you don't mind. Then I'll have room for a bigger piece of pie.
A : 식사가 구미에 맞으셨는지요.
B : 네, 몹시 맛있었읍니다.
A : 감사합니다. 디저트를 더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븐에 금방 만든 사과 파이가 준비되어 있지요.
B : 배가 부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안먹고 지나칠수가 없군요.
A : 조금 기다렸다가 파이와 코피를 드시겠읍니까?
B : 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좀더있다가 먹으면 더 큰파이를 먹을수있을것같군요.

※delicious : 맛있는, 이경우 very delicious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delicious자체에 very의 뜻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냥 delicious라고만 할것.

dessert : 후식 pass up : 빼다, 생략하다, enjoy : 「엔조이」가 아니고「인죠이」로 발음할것.

WHAT DO YOU DO FOR RELAXATION?

한국에 있을때 미국에 가있던 친구에게서 편지가 오는것을 보면 미국생활이 몹시 바쁘다고 항상 써왔으나 그때마다 실감이 나지않았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누구나 공통으로 느끼듯이 정말 눈코 뜰사이가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이렇게 바쁜생활일수록 주말이나 시간나는 때가 간절해 지는데 역시 미국인과 부담없이 여가선용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게된다.

「여가를 어떻게 보내세요?」What do you do for relaxation? 이때 유의할 것은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는 How do you spend your leisure time?이라고도 한다. 이때 leisure의 발음은 미국식 발음인 경우에 「레저」가 아니고「리주어」라고 발음하여야한다.

A : What do you do for relaxation?
B : I read or listen to music.
A : What type of music do you like?
B : I enjoy classical and semi-classical music.
A : How about going to the park concert with me tonight?
B : Great. Where shall I meet you?
A : 여가를 어떻게 보내세요?
B : 독서나 음악감상을 합니다.
A : 무슨종류의 음악을좋아하세요?
B : 클래식과 세미클래식을 좋아합니다.
A : 오늘밤 저하고 공원연주회에가시지 않겠어요?
B :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 : relaxation : 동사 relax(긴장하다)의명사형으로 긴장을풂, 휴양, 오락 park concert : 공원연주회 great : 구어로서, 굉장한, 멋진의뜻이다.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구입처 :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連載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73

장경철. 그는 어떤 사내일까? 가없은 여자의 돈을 7천여만원 써이나 게는 감쪽듯 먹어치운 사내. 분명이든 아니든 나와 동씨라는 사실이 기분 나빴다. 잡히기만 하면 장씨 성을 못쓰게 하든지 광화문 사진현상소 아저씨처럼 그 사내의 가슴에 죄명을 써서 광화문 한 복판에 세워놓든 할 참이었다.

장경철의 사진 백장을 복사하러 갔다. 광화문의 피짜 할아버지 가게앞엔 특유의 할아버지 솜씨로 진열된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할아버지에게 사진현상을 의뢰한 뒤에 시일이 훨씬 지나도 찾아가지 않았다가는 날벼락을 맞기 십상이었다. 안찾아간 사진은 큰 백지위에 나란히 붙이고 그 위와 아래에 다음과 같은 하소연의 사연문 써붙이게 되기 때문이었다.

상기 본인은 생활형편이 극심하게 어려워 죽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사진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그 글귀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런 괴상한 광고판이 나붙으면 며칠 못가서 사진 임자가 찾아가게 마련이었다.

지난줄거리

미스 황은 돈을 많이 모았다는게 드러나서 여관 주인과 한패일 가능성이 짙은 사기꾼에게 교묘한 술수로 돈을 날렸고 앞으로 일년간 몸을 팔돈까지 꼬박꼬박 빼앗기게된 여자였다. 한달에 삼백만원을 벌어 내던 가까이 흘기는 기생충 우글거리는 그곳을 파헤칠 작정을 했다. 섹스 파티의 변태 목욕탕 내막은 기기묘묘했다. 총찬은 사기꾼을 잡으러 나서게된다.

『뭐 할라고 이까짓 걸 백장씩이나 만들어?』

할아버지의 퉁명스러운 말이었다.

『나쁜 놈이라 찾아내려고 그래요.』

『살인 강도라두 되나?』

『그것보다 더 치사한 친구예요.』

『어떤 놈여?』

나는 할아버지에게 대충 엮어든 얘기를 했다.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노려보았다.

『쌍통부터가 그런 짓 하구두 남을 놈이구먼. 이런 자식은 불알을 발라놔야 하는겨. 씨알머리를 없애야지. 쐭인놈 같으니.』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내게 묘한 숫법이 있다고 했다.

『어떤 방법인데요?』

『내 신속하게 백장을 뽑아줄테니 학생이 큰 베니어판 한장하구 확대사진값만 내라. 내가 광화문 한 복판에다 큼지막하게 써 붙여놓으면 제까짓 놈이 안찾아가진 못할 거 아니겠어? 학생이 여기 지켜섰다가 멱살을 잡으면 될 거구만.』

『정말 그래주시겠어요?』

『그런 놈 내가 안잡구 누가 잡아. 서울 놈덜 도적놈을 봐두 외눈 하나 깜짝 않는 놈덜여. 내 젊었을땐 맨손으루다 왕소 뿔두 뽑은 장사여.』

나는 기꺼이 할아버지에게 베니어판값과 대형 확대사진값을 내놓았다. 할아버지는 신바람이 났는지 내게 가게를 맡기고 나갔다. 원판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정교한 촬영실에 가서 크게 확대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였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학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의감이고 나발이고 저 살기에만 바쁜 서울놈들, 말로는 뭐가 어떻게 인간다운 게 어떻고 떠들면서 눈깔 내려감고 다니는 졸장부들에 비하면 괴상한 할아버지야 말로 진짜 정의감이 투철한 양반이었다.

하나님, 봤죠?

늙어도 저렇게 늙는 맛이 있어야 하는 거니다. 곤죽이 되어 분노할 줄도 모르고 다리 펀 채 늙은 젊은 장이나 다 것처럼 큰 기침이나 하는 건 추하게 늙는 거라구요. 얼마나 추하게 늙은이가 많은지 하나님은 잘 아실 겁니다.

쪽바리들에게 나라 팔아먹은 치들도 어른입네하고 큰 소리 치며 잘 처먹고 있죠. 쪽바리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먹어치우려고 가르친 식민지사관에 빠져들어가 우리나라 역사를 개판으로 써갈긴 저 혼자 석학인 줄 아는 멍청이들은 해수기침하며 살죠.

눈꼽만큼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어깨에 힘주며 잘난척하는 늙은이들은 제 배때기 채우는 일만 기능 보유자가 된 걸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진현상소 할아버지는 베니어판 위에 큼직한 그 특유의 글씨로 이렇게 썼다.

상기 본인은 재일동포로 고국에 돌아와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실패하여 아래의 사진을 찾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입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사진값을 지불하고 나왔다. 손빠른 애들 두어명을 잠복 근무 시킬 생각이었다. 사진은 속성으로 뽑아졌지만 대형사진은 내일 아침부터 광화문 중심가에 내걸

린 예정이었다. 운대가 맞으면 그 할아버지 덕분에 쉽게 찾아낼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속성으로 뽑은 사진을 알만한 곳에 돌리도록했다. 그런 제비족 근성이 있는 녀석이라면 돌아다니는 곳이 빤했기 때문에 사진 나누어 주기는 어렵지 않았다.

『사진 찾으러 오는 놈이면 무조건 잡아 채라.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녀석을 보내기 십상이니까 무조건 잡아둬라. 이건 비상 연락망이다. 나는 춘삼이 형하고 같이 있겠다. 만약 이번 일을 실수하면 너희들은 골로 갈줄 알아.』

『걱정마요, 형. 이런 자식은 안놓쳐요.』

두 녀석에게 단단히 교육을 시켜 광화문 할아버지 가게에 숨겨 놓았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비상연락망과 비상대기조로 나누어서 중심가와 영등포일대에 배치를 했다.

이튿날부터 나는 정신없이 돌아다녀야만 했다. 춘삼이 형이 내준 차를 타고 다녔지만 불편한게 많았다.

『너두 운전이나 배워둬라. 이럴때 긴요하게 써먹을 수 있잖아. 내 말 안들었더니 결국 그 꼴 아니냐.』

춘삼이 형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자동차 운전 쯤은 해둬야 될 것 같았다. 무면허로 운전을 안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시험을 치른다고 하니까 어딘지 걸리는 데가 있었다. 시험이라면 수능부터 돋았다. 어려서부터 시험봐서 떨어지는 일에 이골이 나서 그런 것 같았다.

『면허증이 없어서 그렇지 운전이야 그만 아닙니까.』

『우리나란 실제 운전보다 면허증따는게 더 중요한 나라라는 걸 잊지마라. 형식은 중요한 거니까.』

나는 속셈으로 면허증을 하나 따서 썩은 차라도 끌고 다닐 생각을 했다.

광화문 할아버지 가게 앞은 불만했다. 베니어판 전면 빽빽이 두장을 붙이고 그 앞에 장경철이란 사내의 대형 사진이 두장이나 나란히 붙어 있었다. 아무리 확대해서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했지만 사진이 너무 커서 원판 확대같지는 않았다.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잡고 흔들며 웃었다. 앞니 두개가 빠져서 흉해보였다. 나는 녀석만 잡으면 피짜 할아버지에게 이빨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사진 한장 더 뺐지. 그런 놈은 빨리 알려져서 소문에 귀가 간지거리면 빨리 찾아오는 법이거든.』

할아버지는 큰 사진을 가리키며 꼭 잡힐 거라고 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맙긴. 사진 찾으러 오면 내가 따두 그냥 안놓쳐.』

비슷한 녀석을 보았다는 보고도 들어왔고 영등포처에서 어슬렁거린 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어왔지만 정작 녀석의 거처는 알 수 없었다.

가엾은 여자 돈을 훑친놈은 씨알조차 없애버려야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 갚을 거라곤 저를 가지는것 뿐이예요

꼭 닷새가 지났다. 나는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춘삼이 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비족 애들과 여자들 등쳐 먹는 애들을 죄 뿌서보았지만 그런 녀석은 없었다. 나는 점심때쯤에 Y여관을 한번 다 찾아가 미스 황에게 거짓말을 했다. 녀석의 거처가 확인되어 제주도로 잡으러갔으니 며칠 더 기다리라고 말했다.

『이왕 왔으니 날 가지세요. 차라리 그게 맘이 편할것 같아요. 제가 갚을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녀는 옷을 벗으려고 했다. 나는 그녀를 갖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것이 사람의 탈을 썼다는 기본양심인 것인지 모른다.

초저녁이었다. 광화문에서 잠복하고 있던 녀석에게서 연락이 왔다.

『잡았어요.』

『본인이냐?』

『아녜요. 와서 맹장을 놓던데요. 사진 맡긴 적이 없다면서 누가 맡겼느냐, 얼마냐, 꼬치꼬치 캐묻곤 찾아가는 걸 쳤어요. 녀석이 안닮어요.』

『이쪽으로 데리고 올수 있냐?』

『그러죠.』

『빨리 와. 절대 놓치선 안된다.』

십분 쯤 뒤에 청바지 차림의 사내가 내 앞에 앉았다. 다부진 어깨와 부리부리한 눈빛으로 보아 건달밥을 먹는 것 같았다. 춘삼이 형과 애들이 슬그머니 나가버렸다. 내 성미를 알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 준 것이었다.

『누가 시켰는지 순순히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 사진 임자,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라.』

『모른다. 넌 누군데 함부로 사람을 다루는지 모르겠다만...순순히 풀어주지 않으면 골통이 나갈거다.』

제법 놀아본 솜씨같으나 사람 보는법부터 먼저 배우지
나 장총찬 이란놈이니 대충 넘어갈 생각일랑 아예말게

제법 매운 말씨였다.

『임마, 좀 놀아봤으면 사람 보는 것부터 좀 배워라.』

나는 녀석을 묶은 줄을 풀어주었다. 녀석이 제법 발길질을 했다.

『귀엽게 노는구나. 후회하게 해줄께.』

나는 상대가 안되는 줄 알면서 모지락스럽게 걷어차 버렸다. 녀석은 버둥대다가 고꾸라졌다. 관절을 꺾어 의자 위에 거꾸로 세웠다. 녀석은 삼분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미아리 번개 형님이 시켰읍니다.』

『이 자식들이 걸핏하면 번개자 붙이네. 임마 개나 걸이나 번개냐?』

『......』

녀석은 대꾸가 없었다. 나는 두어번 더 걷어찼다.

『왜 찾아오라더냐?』

『누가 봤대요. 그래서 형님이 나더러 찾아오랬읍니다.』

『번개가 그쪽 왕초냐?』

『아닙니다. 큰 형님은 따로 있읍니다.』

『누구냐?』

『도깨비 형님입니다.』

『마빡에 적있는 치 말이냐. 원도끼 쓰는 친구.』

『맞습니다. 도깨비 형님 알면 난리날 겁니다. 풀어주는 게 신상에 좋아요.』

『번개가 도깨비 직속 똘마니냐?』

『그런 셈이죠.』

아마 도깨비 밑에서 빌붙어 그 그늘로 접촉내는 녀석일 것 같았다.

나는 청바지를 앞세우고 미아리로 달려갔다. 춘삼이 형이 애들을 몇 보내준다는 걸 거절했다. 녀석을 옆에 앉히고 내가 직접 운전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작판을 벌이고 있던 패들이 자자기 칼을 빼어 들었다.

『장난하면 손 벤다. 번개가 누구냐?』

가운데 앉아있던 사내가 여유만만하게 일어섰다. 반나체의 계집애들이 사내 숫자보다 한명이나 더 많은 방이었다.

『뭘써, 꽤 찾으슈? 내가 번개올시다. 어디가 가지러우슈? 좀 긁어드릴까.』

날카로운 칼 끝이 나를 향했다.

나는 말장난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짜고짜 녀석의 턱을 걷어찼다. 그 순간 다섯명의 사내들이 돌진해 들어왔다. 마작판으로 쓰던 테이블로 녀석들을 후려쳤다. 모두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는 번개 녀석을 끌고 나와 수채구멍 속에 거꾸로 박았다. 수채구멍물을 잔뜩 들이킨 녀석이 넋을 놓고 주저앉았다. 녀석은 그래도 입을 열지 않고 버티기만 했다.

관절을 꺾어 뒷좌석에 태우고 돌아왔다. 춘삼이 형 입장과 나중에라도 도깨비가 시비를 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지도 아래 백사장으로 끌고 나갔다. 녀석은 한풀 꺾이는 기색이었다.

바른 말을 할리 없었다. 녀석이 먹고사는 방법을 털어보일 위인은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굴러먹은 녀석들의 특징은 쓸데 없는 의리가 강하기 마련이었다. 동업자를 밀고하느니 차라리 죽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내들이었다.

웬만한 녀석이면 관절을 꺾으면 굴복했을 일이었다. 제가 저지른 것은 토해냈지만 여관 주인과 얽힌 흥정은 토해내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녀석을 모래와 쓰레기가 뒤엉킨 바닥에 거꾸로 박아버렸다. 숨도 못쉬고 뒤통거리던 녀석이 납작 엎드렸다.

『형님. 살려주쇼.』

모래와 쓰레기더미에서 나온 오물이 코와 입속에 가득 채워진 채 녀석은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난 장총찬이란 놈이다.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는 놈이 아니다. 도깨비 아니라 도깨비 할애비라도 내 손에 걸리면 뼈만 남길거다.』

또 금방 불 것처럼 하던 녀석이 뜸을 들였다. 독종이었다. 나는 녀석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녀석은 맹글빵글 땡을 돌다가 고꾸라졌다.

『말할께요. 제발...』

아멧도리가 생명의 전부라고 믿는 녀석들의 약점이었다. 아멧도리를 흔들어서 사기쳐 먹고 사는 족속들의 공통점이었다.

『천사장한테 들었읍니다. 그 친구가 돈이 꽤 많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았읍니다. 섭섭하게 하진 않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녀석은 체념한 듯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교묘한 수단으로, 돈을 번 불쌍한 여자들을 농락하고 돈을 알겨내는데 전문가였다. 그렇게 번 돈은 노름이나 다른 계집질로 탕진하는 패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여관 주인 사내도 꽤 알차게 실속을 차린 셈이었다. 일시불로 천오백만원을 받았으며 미스 황이 일년동안 버는 돈을 챙기기 위해 그런 비열한 수단을 쓴다는게 드러났다.

『가자. 가서 네 아가리로 다시 씨부려라.』

나는 준비해가지고 갔던 녹음테이프에 녀석의 말을 남김없이 담았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다 되돌려드리겠읍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무슨 재주로 그 돈을 다 내놓겠다는 거냐?』

『통장에 돈 거 해약하면 됩니다.』

『장기 예금이냐?』

『예, 그렇습니다.』

『웃기는 놈이구나. 그 짓해서 장기예금 드는 놈도 있구나. 미스 황 말고 몇건이나 했냐?』

『......』

녀석은 대꾸하지 않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등쳐서 먹고 사는 전과기록이 수없이 많은 녀석 같았다. 잘 생긴 상판대기와 능수능란한 입놀림이 녀석의 재산인 것 같았다.

『우선 미스 황 돈을 내일까지 해오도록 해라. 그 돈이 도착할 때까지 넌 내가 보관해주마.』

『그렇게 하겠읍니다. 약속을 꼭 지키겠읍니다. 전화만 걸게 해주시면.』

『같은 수가 나한텐 안통한다. 그걸을 명심한다면 네 방식을 따르겠다.』

『고맙습니다.』

나는 우선 녀석이 경찰에 넘어가기전에 미스 황의 돈을 찾고 싶었다. 그런 뒤에 여관 주인과 묶어서 넘길 생각이었다. 이런 부류의 사내들을 풀어놓으면 또 숱한 피해자가 생기는건 빤한 이치였다. 그렇다고 이녀를 병신으로 만들어 풀어줄 수는 더욱 없었다.

『내일 아침 11시까지 현금으로 내앞에 도착해야 한다. 물론 이자하고 그녀가 개인적으로 쓴 것과 다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오른 값을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좋습니다. 대신 저를 풀어주는것도 약속하시겠죠.』

『물론이지 나도 사내니까.』

그러나 내 속셈은 녀석이 알 수는 없었다. 돈을 다 찾은 뒤엔 반드시 도깨비 왕초의 시비가 뒤따르게 될 것을 예상해서 녀석을 경찰서에 넘을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다.

『장소는 내일 아침에 정하기로 한다. 알았지?』

『예.』

밤사이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는 안되었다. 그래서 만약의 습격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돈 받는 장소만은 내일 아침에 다시 약속하기로 하고 이쪽 위치를 비밀로 했다. 가능하면 사람 눈에 뜨이지 않는 넓은 장소로 정할 생각이었다.

녀석을 안심할 만한 곳에 감금시킨 뒤에 나는 소형녹음기 한대를 들고 Y여관으로 달려갔다. 녀석의 전화 때문에 도깨비 일파가 날뛰는 경우엔 Y여관 주인도 될 수가 있는 일이어서 서둘지 않을수 없었다.

Y여관 뒷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다.

중년여자가 반갑게 맞았다.

『어머나 또 오슈? 담셨네. 아무리 젊은 사신이래두.』

『미스 황 있어요?』

점심 때 다녀간 나를 대번에 알아보고 하는 소리였다.

『애고, 뭐가 못잊어 오셨나. 한 삼십분만 기다리슈.』

호들갑을 떨며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천사장님은 계세요?』

『아슈? 안채에 있는데...』

나는 성큼성큼 걸어 안채 쪽으로 갔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한국의 妓生

글·全完吉

믿음과 背反

林慶業은 애첩의 배반으로 金自点의 농간에 말려 죽고
申叔舟의 기첩은 신행길에 뭇사내와 놀아나 화제뿌려

기생이 첩으로 변신하는 일은 더할나위없는 영광이자 생계 확보수단이었다. 그러기에 어떤 기생은 높은 벼슬아치의 첩이 되려고 才藝를 총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첩으로의 변신은 잡은 경우보다 잡힌 경우가 더 많았지만 어떤 경위로 첩이 됐건, 기생첩은 각인각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妓妾의 人氣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君子를 이상으로 삼았었다. 그런데 군자는 女色을 가까이하지 않는다 했다. 그 이유는 여색이 행실을 허비하고, 몸을 허비하고 재물을 허비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李德懋(1741~1793)는 <七小節>에서 여색을 가까이 하면 『腎水가 마르고 心火가 성해져서 그 화염이 폭발하여 오장육부를 태우게 되므로 화도 내고 성도 내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아내와도 잠자리에서 정욕에 휩싸이지 말고 더우기 첩을 거느리면 안된다 하였다. 첩을 둘 경우란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病弱하여 가사를 돌볼수 없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군자를 이상으로 삼고 君子然하였으면서도 대부분 첩을 두었다. 유명한 학자, 이름난 정객도 그러했다.

예를 들면 李栗谷과 같은 대 학자도 첩이 있었으니 正妻는 盧氏였지만 景臨·景鼎 두 아들은 노씨 소생이 아니었으며, 황진이의 유혹을 뿌리치고 속세를 초월했다는 徐敬德도 첩을 두어 正妻에게서 아들 하나, 첩에서 아들 둘을 낳았다.

忠武公도 薰과 蓀등 두 庶子가 있었다. 그런가하면 선조때 명재상으로 알려진 李德馨은 첩이 너무 눈치 빠르게 시중을 잘 든다는 이유로 내보내기도 하였다(피곤에 지쳐 말한기운도 없어 냉수를 달라는 시늉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醍醐湯(약재를 넣어 만든 청량음료)을 올렸다. 그러자 감탄하여 한참 바라보다가 첩에게 빠질까 염려하여 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유명한 시인 李玉峰도 趙瑗의 첩이었다.

이로 미루어보면 너 나할 것없이 첩을 두었는데, 첩 열명가운데 일여덟이 기생 출신이었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기생은 아름다운데다가 남달리 정규교육을 받았고, 歌舞를 익혔으며 손님 접대법과 房中術까지 수면하였으므로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아내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사랑받는 아내란 성실하고 정숙한 주부이자, 침실에서는 요부, 다정한 친구여야 한다는데 조선시대의 아내들은 성실하고 정숙한 주부, 아이들의 인자한 어머니였지 요부나 친구역할은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일까. 기첩으로서 翁主칭호까지 받고 命婦들과 잔치에 당당히 자리를 함께 한 예도 있다.

조선 태조의 아우인 義安大君의 첩 梅花는 본래 판기였다. 의안대군의 첩이 된뒤 태조가 특별히 옹주라는 칭호를 내렸다. 매화는 嫡妻처럼 행세하게 되고 太宗때 慶貞公主의 가례날에는 종실의 命婦들과 나란히 잔치에 참예하기도 하였다.

♥義와 權力

金蟾은 본래 함흥기생으로 동래부사 宋象賢(1551~1592)의 첩이되었다. 임진왜란때 송상현이 적군들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데, 김섬은 송상현을 따라다니며 시중들다가 송상현이 적군을 피하라는데도 끝내 옆에서 울며 달아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송상현의 곁에서 함께 죽었다. 이에 적장 다히라(平義智)는 송상현의 충절과 김섬의 순절에 탄복하여 동문밖에 합장해 장사를 지내고 묘비를 세운 다음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훗날 사람들은 忠烈祠를 지어 그의 정절을 기렸다.

김섬은 결코 영화를 누렸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아비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내던짐으로써 뭇여성의 사표로 승화하였다.

愛香도 그렇다. 그는 鄭撥(1553~1592)의 첩이었다. 임진왜란때 정발은 부산 첨사로 있으면서 적군과 싸우다가 죽었는데 애향도 진중에서 함께·순절하였다. 조정에서 애향의 순절을 가상히 여겨 충렬사라는 사당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이처럼 의로운 妓妾은 그리 흔하지 않고 대부분의 기생이 金佐根의 愛妾 羅閣처럼 권세와 돈을 싸쥐려 하였다.

尹元衡의 애첩 鄭蘭貞이 그런 유이다.

♥妖花蘭貞

정난정은 武臣으로 副摠官에까지 오른 淸溪君 鄭允謙(1463~1536)의 燕女였다. 언제 어디서 기생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그는 빼어난 미모덕에 윤원형의 첩이 되었다. 윤원형은 文定王后의 동생으로서 少尹의 우두머리였는데 제주와 미모로 윤원형을 사로 잡은 난정은 正室인 김씨를 독살하고 정실이 되더니 貞敬夫人에 봉해졌다.

그는 세도의 후견인인 문정왕후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사고 권력의 표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를 통해야만 일이 이루어지고 그와 친해야만 벼슬을 얻을수 있었다. 뇌물이 문전에 산적하였으며 도성안에 집만도 열세채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도의 후견인이었던 문정왕후가 죽자 일시에 몰락했다. 다행히 죽음을 면한 윤원형은 관직이 삭탈되어 귀양갔다.

원형은 난정과 交河로 몸을 달아났다가 원한을 품은 자가 찾아올까봐 江陰으로 도망하였는데 정실 김씨를 독살한 사건이 들통나자 난정은 약을 마시고 먼저 죽고 원형도 얼마뒤 따라 죽었다. 난정은 죽은 뒤에 정경부인이라는 직첩이 거두어지고 도로 妓籍에 올랐다. <燃藜室記述>

♥벌과 나비처럼

흔히 기생을 일러 <路柳墻花>라거나 <東家食西家宿>이라고 한다. 모든 기생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기생들 때문이, 아닌가 싶다. 조선 仁祖때 林慶業장군은 그와 공을 다투던 金自點의 농간으로 피살되었는데 김자점이 그를 제거한 이면에는 임경업이 사랑한 妓妾때문이었다.

임경업의 기첩은 임경업이 명나라로 망명하자 평소에 그 기첩을 탐내던 김자점이 차지해버렸는데 그 기첩은 김자점에게 임경업의 속마음을 고자질했던것이다.

그러고보면 옥매향은 그리 비난받을 기첩이 아니라야겠다. 왜냐하면 옥매향은 기생이었다가 벼슬아치의 첩이 되었는데 林百齡이 빼앗자 그리로 옮아가서 정만 옮겼지 전 남편을 저주하지는 않았으니까.

申叔丹(1417~1475)의 기첩도 그러했다.

함께 산지 4년만에 고향인 고부에 온 신숙주의 첩은 꿀 젊은이와 사랑에 빠졌다. 젊은이는 사랑의 밀착이 고갈되어 불안을 느낀 나머지 넌지시 기생의 마음을 떠보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나 네 마음 속에 동굽이 있지 않겠느냐?』

『장상에 사는 李淸이 갑이요, 광주 군인 林萬孩이 을이요, 신숙주대감이 그 다음이고 학생 朴命春과 명남 때돌이 吳[illegible]이 정과 무요…』

한이 놀라 그 다음을 들었다. 그제서야 기생은 한을 가리킨다. 어이가 없어 나담한 한이 걸식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것이다.

그래서 정을 믿지 않고, 花柳界 여자에게 정을 주지 말라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계속>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210
(BLOOR & JANE 세이)
766—4441, 766—4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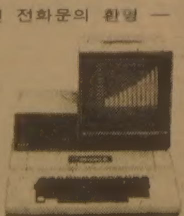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 · 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일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못참을 굴욕은 개와의 싸움이죠

부산東萊우체국 池弘林·崔英順커플의 고난과 보람

우리는 幸福한 夫婦 집배원

부부집배원이 동네를 누비며 기쁜 소식, 궂은 소식을 빠짐 없이 전달해주고 있다. 이들 부부는 부산東萊우체국소속 池弘林씨(37)와 崔英順씨(34). 1년에 2번이상은 개에 물리기도하고 비가 와도 우산도 못쓴채 무거운 우편행낭을 어깨에 메고 하루 50리이상을 걷는 이들 부부는 그래도 『다른 부부집배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부부집배원으로서의 긍지를 자랑했다. <화보 참조>

池씨가 집배원 생활을 시작한 것은 73년12월18일 체신공무원기능직에 합격하면서부터. 부산東萊區사직동이 池씨가 처음 책임진 배달구역이었다. 이 지역은 농장이 많고 또 산골짜기에 암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편지 1장 전하는데 3시간이 걸리기도하는 골치아픈 지역으로 소문나 있었다.

더구나 비라도 쏟아지는 날이면 우편행낭이 크고 배달물량이 많아 우산도, 못쓴채 흠뻑 비를 맞는수 밖에 없었다. 이럴땐 『왜 내가 집배원이 됐나』 후회하기도했다고 池씨는 말했다.

부인 崔씨가 집배원 일을 시작한 것은 80년4월부터로 주재집배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다. 서울芳山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崔씨가 지난69년 물건을 사기위해 부산으로 가다가 열차안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池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한 것이 결혼으로까지 이어졌다.

池씨는 매일 6시전에 일어나 6시30분에 집에서 출발, 근무지인 東萊 우체국엔 버스로 30분정도 걸려 7시께 도착한다. 담당지역에 배달할 우편물을 돌리기 쉽게 분류해서 작은 묶음으로 엮으면 9시~9시20분께.

각종 사연이 담긴 행낭을 메고 하루에 걷는 거리는 대충 잡아도 18~22㎞로 50리안팎이나 된다. 우편물이 담긴 행랑은 보통 30㎏정도로 8백여통의 편지와 소포가 들어 있곤한다. 날씨가 좋으면 이 우편물을 돌리고 하오4~5시께 우체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비라도 오는 날이면 池씨는 죽을 지경이다. 우편물이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여러겹을 싸고 또 싼다. 행낭이 무거워 우산도 들수 없기때문에 池씨는 속살까지 비에 젖을수 밖에 없다.

이보다 더욱 힘든것은 개와의 싸움이라고 池씨는 털어놓는다. 池씨는 지금까지 매년 2번이상 개한테 물렸기때문에 개를 묶어놓지않고 놓아기르는 집엔 정말로 우편배달할 마음이 없어진다고 치를 떨었다.

수취인이 불리한 특별송달을 할때도 池씨는 곤욕을 치르곤한다. 수취를 거절하는 주민이 알아듣지 못할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온갖 수모를 줄땐 하도 서러워 울며 돌아와 상사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다.

◇우편 행낭을 어깨에 메고 東萊우체국정문을 나서는 부부집배원 池弘林씨(左)와 崔英順씨.

『처전엔 한 주민이 쑥떡을 싸주어 집심은 물론 간식까지 쑥떡으로 채우고도 남아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과 나눠 먹었다는 池씨는 『농민들이 제일 먼저 수확한 햇과일등을 한봉지씩 싸줄땐 우편집배원으로서의 보람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내가 고달파서가 아니라 우편물이 신속·정확히 배달되기위해서는 주민들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다』고 池씨는 당부한다.

①봉투는 물론 대문에 번지와 통반을 정확히 써줄것, 셋방에 들어 있는 경우엔 주인이름까지 써줄것.

②개는 묶어 놓고 기를 것

③등기등의 경우 수취인이 집에 없을 땐 메모를 남겨두고 오는데 꼭 우체국으로 연락해 줄것.

④주민등록을 주소지에 올겨두고 살것(주민등록만 되어있고 사람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음).

⑤문패를 꼭 달고 우편수취함을 꼭 달아줄것 등이다.

주재집배원일을 하고 있는 池씨의 부인 崔씨가 맡은 집배구역은 安樂아파트45세대구역이다. 하루 평균 20~30통의 편지·소포가 배달되는데 주소와 수취인만 있고 동, 호수가 없을 땐 동장에게 확인까지해가며 수취인을 찾아 배달하고 있다.

50릿길 매일 돌며 온갖 喜悲겪고

맞벌이 月32만원…長官표창 받아

낮엔 우편물을 배달하고 밤엔 가사를 돌보는 崔씨는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시중들기 위해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하므로, 세탁동은 일요일에 모아 하고 있다.

남편 池씨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7시께. 우체국에서 배달하고 남은 우편물(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을 정리하고 집배나갔을때 들어온 우편물을 정리하고 난뒤 우체국 서예교실에서 글씨연습을 하고 퇴근하기때문에 퇴근시간이 늦은 것이다.

12살된 아들 대우군등 남매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집배원부부는 맞벌이라곤해도 수입이 보잘것없는 편이다. 남편池씨의 한달봉급이 본봉15만2천원, 차비·식대1일8백원, 시자외수당 월5천원, 가족수당 월2만원을 모두 합쳐서 19만여원과 부인 崔씨의 12만7천5백원을 합쳐 32만여원이 전부다. 알뜰 살림을 꾸려나가는 이 집배원부부는 『지금은 연립주택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모아 13평형이나마 내집을 마련하는게 꿈』이라면서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다.

81년 체신의 날엔 문패달아주기운동을 편 공로로 모범공무원상을 타기도한 池씨는 금년 체신의 날(4월22일)엔 또 장관표창을 받았으며 우표수집, 서예등의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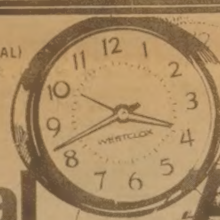
<글·사진=金寧煥기자>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 사업확장을 계획하십니까?
*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월~토)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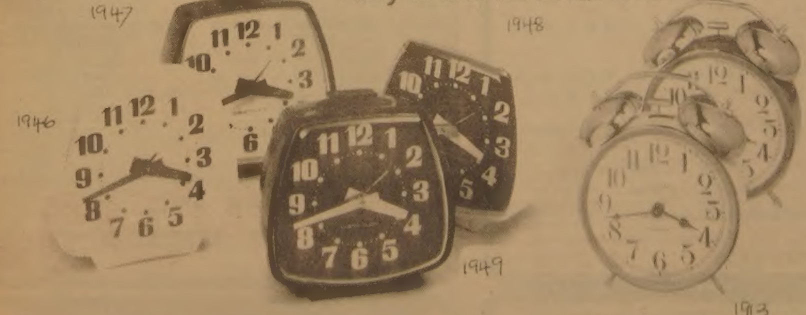
Special 'Alarming' Promotion

BUY ANY SIX CLOCKS
— ONE FREE

NEUCHA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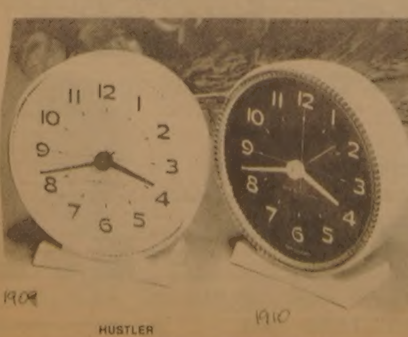
CHANTILLY

Keywound Alarms



COLT

TWIN-BELL



HUSTLER

SILVER 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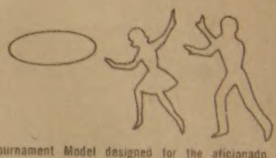
「NOOR ES 〈INTERNATIONAL〉에서 알립니다」

본사와 거래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지상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근간 많은 고객으로 부터 문의를 받은바 있는 본도매상의모든 상품의 가격 문제는 어느 도매상과도 비교 될수 없는최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더우기 치솟고 있는 가격의 변동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저선을 유지 한다는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곳에서 특별할인을 받고 있다는 점 잊지마시고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MASTER FRISB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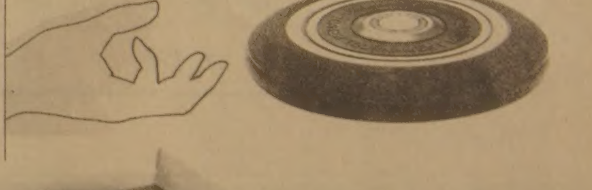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MA 811

BUY SIX
—ONE FREE

The Master Tournament Model designed for the aficionado, International Frisbee Association approved, weighing 150 grams with a diameter of 10.9168



NEW
Increased size and weight for optimum flight and wind performance

*The Master Frisbee will be the Official Frisbee used in the International Frisbee Competition for qualified masters.

MA 930

JUNIOR
BADMINTON

BUY 3
—2 FREE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전화: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선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조 지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구 인

사람을 찾음.
정경희(여) 부군 MR. 양.
부산태생으로 10여년전에 오타와에서 결혼
딸이 10~12살 정도 됐을것으로 짐작.
찾는이: 미국 발티모 최선희
집: 1-301-256-9088
B: 1-301-686-0192
혹은 몬트리얼 조병철
집: 1-514-486-7945
B: 1-514-484-3541

미치 일본 식당에서 일하실 요리사와
혹은 견습요리사 구함.
459 Church St. Tor.
전화 : 924-7501(오후12 : 30~오후6 : 00)

양복점 기술자 구함
남자 테일러, 여자재단사
중국인이 경영하는 고급양복점으로 작업환경이
좋고 고급기술을 습득하기에 좋은곳.
희망자는 직접 내방하기 바람.
737 Broadview Ave. Toronto 부로드뷰와댄포스남쪽

디자이너를 위한 손으로 짜는(Handknitter)
재봉일 하실분.(영어를 할수 있어야함)
전화 : 487-7779 Kathy

청소 하청하실분 구합니다.
월 $500씩 두곳, 경험 1년이상 있으신분
Hwy 401 × 이스링톤. 전화 : 493-0320, 444-1322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오후 6시~밤11시) Queen St. E.
전화 : 466-3995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일본음식점에서 부엌일 도우실분과
Handyman (Part time) 구함
195 Richmond St. W. 전화: 977-9519 Harry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7

유경험 여자 캐셔 구함
1220 Davenport Rd.
전화 : 656-3020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톰), 531-0773(김)

아이스크림 스토아에서 일할 학생구함.
(미시사가지역 여학생환영) 전화 : 277-8772

Mac's Milk Store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주3일 : 금, 토, 일)
26시간 1 Week
전화 : 221-9051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

1. 대지와 건물및 도너스숍
넓은 대지에 집이나 스토어 건축가능. 40만불 요구
다운페이 15만불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Variety & Hardware Store 매매
주매상: $9000이상 권리금및 Stock은 All Cash
요구, No Mortgage! 리스 4년+옵션 5년
361 Carrville Road, Thornhill Ont. (Hill Crest Mall옆)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lk Store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5년+옵션5년
394 Browns Line, Etobicoke, Mr. Kim

모든 면허가 나와있는 레스토랑(Tavern)
급매.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겸해서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임. 매우 좋은조건의 Rent
와 Long Lease. 좌석 : 156석
위치 : 21 Vaughan Rd.
Ask Paul or Ivan 전화 : 656-9503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OPEN 1년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코저 함.
주매상 $3,500 렌트 $500
두대의 비데오 머신에서 렌트비 카바함.
전화 : 961-9780(B) (오후6시안으로)

좋은위치에 3 Bed Room 포함한 토론토
북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의 수입좋은 가게 매매
Royal Trust Real Estate
전화 : 773-6101, Bud Eige

큰 규모의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2,400 sq. ft. 주매상 : $7,500
아스킹 : 7만불+스탁
전화 : 769-9704(5시이후)

건물및 상점(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현주매상 : $8,500~$8,800 아스킹 : $229,500
로타리오 머신 (별도)
237 ParkLawn Rd.(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새로운 장비 갖춘 Mr. Donuts Franchise
위치 : Young St. North Thornhill
넓이 : 1500 Sq. Feet
영업시간 : 6 : 30 Open - (24 Hours)
좋은조건의 Lease, Call Mr. Pridham 833-3095
The Gormley Group Realestate

써브-마린 가게 급매 아주 좋은 조건임. (Barrie중심지역)
전화 : 1-705-722-7422 Mr. Eloi 낮12시-오후10까지연락
낮12시~오후10시까지 연락바람.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ck
Shop)주매상 : $3000이상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 (Oakville)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그로서리 기프트 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위치는 동쪽
연락처 : 281-2730 ·강(11시~5시)

성업중인 그로서리 및 버라이어티 딸린
건물 급매
전화 : 532-8260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혐편상 급매
가격 : $19,000 +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Using Language Labor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months (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Milk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 King St. E. (Bowman Ville, 오샤와 지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ac's Milk 급매
전화 : (B) 368-0686, (R) 292-2024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버거 펙토리 매매
위치 : 보닝싸이드×세파드. Call Jhon 또는 Art.
오후5시에서 9시사이에 전화주세요. 전화 : 281-0288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Hamilton지역)
주매상: $4,500, 아스킹: $45,000+스탁, 리스: 7년+10년(옵션)
리스: 7년+10년(옵션) 전화 : 1-388-4825 (Mr. 유)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200-4,500, 아스킹 : $29,000+스탁
1000 Pape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Variety &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000이상, Rent & Lease 좋은조건
704 Wilson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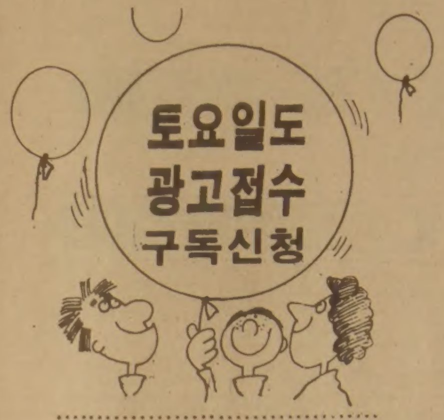
---

2 Ton(2000 Kg) 적재할수 있는 Condition좋은
Trailer 매매 가격 : $1,200
전화 : 532-0602 (3시에서-6시사이에 연락바람)

하우스 렌트

클링톤하우스 ·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한국일보광고부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남녀커트, 파마및 스타일 전문
631 Bloor St. W. (서울여행사2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 역 및 통 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한국일보 안내광고 *